6.15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33호 (2월 1일~2월4일)



노작 -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 방영!

짖어라 부쉬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당면투쟁구호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민족최대명절 2월 16일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통일아리랑≫을 창간하며

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 실무대표회담 기자회견

BBC ≪미8군이 피난민 학살 명령≫

리회창이 자기의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 한 상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33호 (2.1~2.7)

3 노작 -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5 세기와 더불어 - 3. 경박호 기슭에서

9 조국통일의 구성 - 누리에 넘치는 위인숭배열기

10 특별기사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 방영!

특집 - 짖어라 부쉬야

11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

12 한미간의 전쟁공조책동, 날로 노골화

13 미국무부차관이라는 자가 이북을 걸고든 것과 관련해

14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공조책동, 갈수록 심해져

16 미국대통령 부시, 호전적 망발

17 한나라당총재 이회창 국회에서 매국배족적 망발

18 미 전문가들이 북과 이란관련 부시 발언비판

18 부시발언 비판 전세계 확산

19 공동실천, 반전평화기자회견

20 전쟁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방한 저지와 GM규탄 반미결의대회

21 시민사회단체 부시규탄 성명 잇따라

22 민주노동당, 부시방한규탄 긴급기자회견

23 부시방한 저지,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24 문인들도 미 대북강경정책 비난

25 여야의원 16명 ≪부시 밀어붙이기 심각한 우려≫

26 정치권 부시발언 비난확산

26 ≪미, 햇볕정책 흔들지 말라≫

27 부시에 단호히 맞서십시오

29 공갈연설은 그만두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한국민족민주전선

31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32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당면투쟁구호

33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청년주체주의자대오

34 민족최대명절 2월 16일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35 ≪통일아리랑≫을 창간하며

6.15공동선언실현

36 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 실무대표회담 기자회견

37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기자 회견문

37 민족공동모임 합의서

38 정부, 금강산 새해맞이행사 참가허용

38 전국 대학 2백여개 과 ≪금강산 모꼬지≫ 추진

주한미군철수

39 무엇을 노린 특수미사일부대인가

40 BBC ≪미8군이 피난민 학살 명령≫

41 ≪민간인 학살, 얘기하면 끝이 없어≫

42 민간인 학살증명 미군 기밀문서 공개

43 노근리 사건 UN인권위 상정 본격화

반통일세력단죄규탄

44 한나라당총재 이회창, 통일 이후 주한미군주둔 망발

45 그 애비에 그 아들

46 이회창은 반통일광

47 리회창이 자기의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 한 상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47 리회창의 미국행각시 발언한 망언을 규탄

48 조선일보를 참해한다

49 아리랑대공연을 헐뜯는 ≪조선일보≫를 규탄

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50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되게 하자

51 김도형학우를 즉시 석방하라

민중연대

52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출범식

53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 총화

대담

54 분열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해버려야 한다

56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려면

57 학습 - 현 정세와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공보

59 ≪백두기간≫을 선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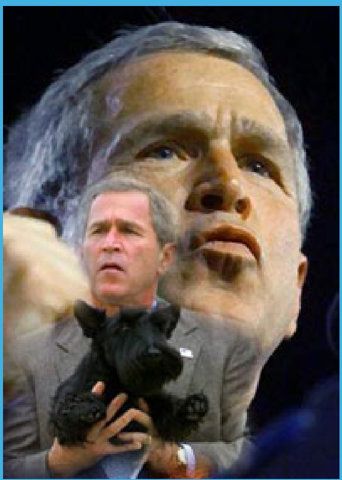
60 위대한 장군님 탄신 60돌 기념특간호를 발간하며

61 ≪월간백서≫를 발간하며

62 인터넷구국전선에 내나라컴퓨터사에서 만든 백두산3대장군의 동영상 게재!

63 시 - 붉은 백두

64 뉴스 - 주체91, 1/27~2/3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의장단회의에서 한 연설
1948년 1월 9일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책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은 미제가 조선문제를 유엔에 비법적으로 상정시키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유엔총회에서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그의 감시 하에 조선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외에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횡포 무도하게도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였습니다.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조선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명분도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에 매수되어 움직이는 추종국가들의 ≪대표≫들이 망라되어있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어떻게 조선문제를 조선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제가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인 목적은 ≪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괴뢰단독정부의 조작을 ≪합법화≫하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정당화하려는데 있습니다.

오늘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제 정당, 사회단체들은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서 물러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끌어들인 미제와 그 주구들의 죄행을 견결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화책동이 본격적으로 감행되고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위기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절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바라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정견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미제의 조선침략책동을 분쇄하고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구국대책을 협의하고 모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의 협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하루속히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할 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미 제의한 남북협상을 성사시켜야 하며 바로 이 길이 나라의 통일독립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남조선의 많은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우리의 남북협상제의를 지지하며 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말에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는 남북협상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11월에는 10여 개의 중간 및 우익 정당대표들이 모여 정당협의회를 결성하고 남북협상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남북협상기운은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에서 우리는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제의 새로운 침략책동에 의하여 조성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 개별적 인사들이 호상 접촉하여야 합니다.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 개별적 인사들이 호상 접촉하여야 의사를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좋은 구국대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 경로이건 비공식적 경로이건 관계없이 모든 가능성을 다 이용하여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 개별적 인사들이 호상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당면한 대책으로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개별적 인사들에게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파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당장 접촉하고 협상하기는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서신을 통하여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나라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려는 우리의 애국 애족적이고 원칙적인 입장과 의사를 전달하고 남북협상에 응해 나서도록 다시금 제의하면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한에서는 우리 나라에 민족분열의 엄중한 위기가 조성된 데 대하여 언급하며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엄중한 위기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소위≪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내세워 남조선에서 괴뢰정부를 조작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여야 합니다.

서한에서는 각 당, 각파와 각계 인사들이 협애하게 자기의 사상과 주의주장만 내세우면서 서로 경원시하고 반목 질시하면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미제와 그 주구들을 도와주는 행동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한에서는 비록 과거에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연북합작하려는 사람들과는 그들의 과거경력이 어떠하든 지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서한에서는 구국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빨리 진행하자는 것을 제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 개별적 인사들과의 사업을 한 두 번 만나보고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남북협상방안을 옳게 인식하고 남북협상에 적극 응해 나 설 때까지 진지하고도 인내성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을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반대 배격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공세를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한 선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미군정과 이승만 도당은 북조선에서 발행되는 출판물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각방으로 막아 나서고 있으며 ≪유엔임시조선위원단≫에 대한 허위선전과 북조선에 대한 악선전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선전은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앙방송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미제는 조선의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침략자이며 조선인민의 원수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반대 배격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북조선민전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 개별적 인사들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여 남북협상을 하루속히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3. 경박호 기슭에서

≪세기와 더불어≫ 제4권 제11장 혁명의 분수령



…

생사의 기로에 놓인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우리들 앞에 제기하고 있는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취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짓기 위하여 나는 백두산으로 떠나가 전에 먼저 소자지하에서 조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지하기로 하였다.

모스크바에 간 사절들을 기다리면서 회의에 제기할 보고서 초고를 거의 끝내가고 있던 2월 중순의 어느날 저녁무렵 기척도 없이 귀틀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위증민이 불쑥 내 앞에 나타났다. 몇 달동안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예정보다 늦게 돌아왔노라고 하면서 그는 퍽이나 미안해 하였다. 비록 예정기일은 초과하였지만 그가 병약한 몸을 추세워가기고 만주로 돌아온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었다. 모스크바 바람을 쏘이고나서 그런지 몸이 퍽 충실해진 것 같았다. 아직은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겉모습과 여유작작한 표정만 보고서도 그의 모스크바행이 좋은 결실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위증민의 귀환노정이 순탄치 않았다. 그는 철도로 할빈을 거쳐 녕안에까지 와서 주보중의 5군 동무들을 만나 본 다음 남호두로 오다가 만구부락근처에서 순찰중에 있던 경찰들에게 걸려들었다. 몇마디의 심문 끝에 상대를 수상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자기네 분서로 끌어가려고 하였다. 위증민의 보따리 속에는 국제당에서 받은 중요문건들이 들어 있었다. 끌려만가면 만사가 끝장날 판이었다. 그는 돈 50원을 경찰의 손에 쥐여주고 무사히 풀려나왔다.

위증민은 자기 몸값이 몇만원쯤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50원 밖에 안되더라고 하면서 농을 하였다.

위증민은 별스럽게도 나에게 새삼스러운 악수를 청하였다.

≪**김일성**동지, 그 손을 다시한번 잡아봅시다.≫

순간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방금 전에 악수했는데 또 무슨 악수입니까?≫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악수는 의의있는 악수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김일성**동지, 국제당에서는 동지의 제소를 받고 그것을 심중히 토의한 끝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그를 지지하여 중대한 몇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일이 조선공산주의자들

의 소망대로 되였습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눈굽이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위증민의 두 팔을 덥석 끌어당겼다.

≪그렇습니까!≫

≪예, 국제당은 반≪민생단≫투쟁문제를 비롯해서 동만당의 일부 활동에서 엄중한 좌경적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당의 책임일군들로부터 거기에 가 있는 중공당 대표부 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견해를 표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것을 국제당이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국제당은 앞으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중국혁명을 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을 맡아 하도록 책임을 서로 분담할데 대하여 명백한 결론을 주었습니다.≫

위증민은 왜인지 한동안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나는 그가 무엇인가 심중한 자책과 회오에 잠겨 있음을 간과하였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연성을 높이며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하던 지난날의 격론을 돌이켜보는 것인가, 다홍왜와 요영구의 회의장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논란을 겪어 왔던가, 그리고 회의장 밖에서는…

그런데 위증민의 모스크바행으로 하여 그처럼 복잡한 문제가 우리의 소망과 염원대로 순조롭게 풀리게 된 것이다.

위증민의 모스크바행과 관련한 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그가 국제당 7차대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학습시찰을 목적으로 지방당간부 10여명을 대동하고 훈춘에서 떠났으며 그의 주요임무는 국제당 주재 중국대표단에 ≪민생단≫문제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그가 국제당 7차대회에 참석했다는 자료가 지금도 국제당문헌고에 엄연히 남아있다.

위증민은 자기가 모스크바에 가서 만주에서 빨찌산 투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국제당에 제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가 국제당에 제출한 보고는 ≪풍강보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어떤 자료들에는 그 극좌의 주되는 책임이 위증민에게 있다고 씌여 있으며 그와 반대로 어떤 자료들에는 그가 동만특위 서기로 파견되어온 다음부터 반≪민생단≫투쟁에서의 편향이 바로 잡히게 되었다고 지적되어있다.

나는 반≪민생단≫투쟁의 모든 해독적 후과에 대한 책임이 다 위증민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여 1934년 겨울 위증민이 할빈사당 서기로 있으면서 성위순시원으로 동만에 파견되어 왔던 초시기 ≪민생단≫문제와 같은 복잡한 사태에 그가 매우 당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당시 그는 혁명조직과 유격대 안에 ≪민생단≫이 많이 박혀 있고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숙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기성의 사고방식에 적지 않게 매달려 있었다. 후에 말하기를 그는 처음에 대부분의 조선사람이 다 ≪민생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실토하였다.

위증민이 국제당에 거서 우리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를 놓고 보아도 그의 말은 대체로 진실인 것 같다.

≪**김일성**, 조선인. 용감하고 적극적이다. 중국어를 잘한다. 빨찌산 출신이다. ≪민생단≫이라는 진술이 대단히 많다. 대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대원들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구국군 속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어쨌든 위증민은 초기의 이러저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민생단≫문제와 관련한 국제당의 결론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그가 숙반투쟁에서의 극좌적 오류를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사실 그는 다홍왜회의 때에도 ≪민생단≫문제와 관련한 나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였다.

그가 민족관념을 초월하여 국제당에 동만의 실태를 정확히 보고하고 우리에게 이롭도록 만사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돌아온 것은 고마운 일이였다.

≪고맙습니다. 국제당도 고맙고 특히 우리를 위해 병약한 몸으로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수고해 준 위증민 동지가 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되는 나의 인사였다.

위증민은 과분한 칭찬이라고 하면서 몹시 계면쩍어 하였다.

≪동만특위와 그 산하의 우리 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면서 문제를 편협하게 보고 사람들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처리한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애매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반≪민생단≫투쟁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나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위증민의 말을 진실한 자기반성으로 받아들였다.

≪로위,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인데 왜 실책을 범할 때가 없겠습니까. 나는 ≪민생단≫문제가 복잡하게 된 근본원인을 일본놈들의 민족이간 책동에서 찾고 싶습니다.≫

≪옳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적이 던진 계책에 한동안 빠져서 골육상쟁을 벌린 셈이지요. 제편끼리 해질내기를 했으니깐…≫

위증민은 ≪내가 동만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간도땅을 자기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도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필시 일본놈을 등에 업고 간도땅을 차지하려 할 터이니 철저히 경계하라고 했지요. 내가 처음에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하고 허구프게 웃었다.

위증민의 얼굴을 텨다보는 나는 어딘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로위, 만사가 다 좋게 풀렸는데 지난날의 일들을 더 생각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하여 로위를 국제당으로 전송할 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위가 우리의 제의를 성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국제당에 책임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언명했을 때 그 성실성을 믿었더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국제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드는 것은 죄로 되지 않겠다는 것과 그것은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응당히 분공주었어야 할 신성한 의무이며 1국1당제 원칙으로도 빼아낼 수 없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당한 권리라는데 대해서도 명백하게 결론하였다.

우리는 조롱속에 갇혔다가 놓여난 새처럼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는 광활한 자유를 선사받은 듯한 심정이었다. 우리에게는 전에 없던 날개가 생긴 셈이었다. 날개가 생긴 이상 조선혁명은 급속히 상승비행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

다.

위증민은 국제당 제7차대회의 전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해 주었다.

당시 국제공산당 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세계적 판도에서 강력하게 벌이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후 이딸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파시즘은 많은 구라파 나라들에서 음산하고 불안스러운 정치적 변동을 가져왔고 인류의 머리위에 새로운 전쟁의 구름을 몰아왔다. 이딸리아의 무쏠리니에 의해 조직된 ≪국민파시스트당≫으로부터 시작된 파시즘은 독일의 히틀러와 그에 의하여 조직된 나치스당에 의해 극치를 이루었다.

파시즘은 극단적인 민족배타주의를 고취하였는 바 이것은 독일이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화근으로 되었다. 파시즘이 안고 있는 극단한 반공심리는 반유태인주의와 결합되면서 그때까지 존재한 고금동서의 모든 반동사조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해독적인 사조로 되었다. 파시스트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정치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부르죠아지는 히틀러와 같은 파쑈독재자의 강력한 주먹만이 독일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를 제압하고 독일제국의 새로운 중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히틀러파시스트는 권력을 탈취한 후의 첫 사업으로 독일공산당을 반대하는 모략에 달라 붙었다. 온 세상을 경악케 한 악명높은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은 이 모략에 의해 연출된 희세의 광대극이다.

국회의사당을 방화하면서 히틀러나 게링그가 노렸던 정치적 목적은 수치스러운 실패로 끝났다. 그들은 물론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을 비법화하고 국회 자체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기는 했지만 세계의 면전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노골적인 부르죠아정치체제로서의 파시즘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독일파시스트는 세계의 면전에서 도발자, 독재자, 전쟁방화자로 낙인되었다.

독일에서의 파시즘의 강화는 진보적 인류를 각성시켰다.

파시즘의 대두와 새 전쟁 위험에 직면하여 국제공산당은 공산당과 사회당의 분열을 막고 통일적인 보조로 파시즘에 대항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국제적으로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동방 피압박민족들과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의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처하여 모든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산당 제7차대회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걸고 각국 공산당들이 모든 반파쑈 역량과 반제역량을 결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증민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국제적 범위에서 강력히 벌일 데 대한 지미뜨로브를 당대의 거인이라고 생각하였다. 파시즘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데 대한 그의 호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진보적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쏘련 사람들인 지노비예브나 부하린, 마누일스끼를 대신하여 벌가리아 사람인 지미뜨로브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국제당의 활동이 독자적인 매개 공산당들의 활동에 입각하여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산 실례로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국제당 제7차대회가 자기결의에서 매개 당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상당한 정도로 허용하였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회가 조선 혁명에 대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위증민의 귀환보고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위업의 정당성, 우리 노선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다. 위증민은 ≪만주에서의 반제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양송의 기사가 실린 국제공산당 기관지 ≪공산국제≫와 국제공산당 동양부에 있는 왕명, 강생이 연명한 국제공산당에서 길동지구 책임일군에게 보내는 서한을 나에게 주면서 여기에 조선에 대한 국제당 결정의 기본부분이 다 해설되어 있다고 하였다.

양송은 자기의 글에서 좌경기회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고 반일통일전선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제기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이제 중, 조, 몽, 만 피압박민족의 통일전선이라는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중조민족은 굳게 연합하여 일본의 괴뢰만주국 통치를 전복하고 간도 조선인자치주를 건립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중조반일연합군에 망라되어 활동하면서 조선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게 할데 대하여서도 강조하고 있었다. 양송이란 내가 1차 북만원정 때 주보중이 산막에서 만나보았던 국제당 파견원 오평을 말한다.

국제당에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한 정신적지지, 노선 상의 지지만 보내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조선혁명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대책적인 안까지 주어 행동상 지지도 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던 반일유격부대들을 조선인 부대와 중국인 부대로 갈라 재편성하도록 하라는 지시었다.

이 문제로 말하면 사실상 조선혁명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문제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조선혁명의 주체성, 독자성을 견지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제당의 지시대로 만주의 모든 유격부대들에서 조선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순수한 조선인 부대를 따로 편성한다면 그 역량만으로도 능히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2개 사단 역량과 대적하여 혈투를 벌일 수 있었다. 우리가 일당십의 정신으로 일본군과 혈전을 벌이게 되면 조선청년들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합세하면 전국은 달라지고 조국광복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해동안 한 전호에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연합항일을 해온 공산주의자들로서의 형제적 의리, 전우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 자기들 쪽에 유리하다고 하여 조선사람들을 다 빼오게 된다면 조선족 군사인원이 90%나 되는 제2군같은 것은 허물어지고 말 수 있었다.

2군을 제외한 다른 유격부대들에는 중국인들이 과반수였으나 그 대부분은 반일부대 출신들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은 많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지휘성원들은 어느 부대에서나 다수가 조선사람들이였다. 각 부대의 핵심역량도 역시 조선인대원들이였다.

이런 형편에서 조선일들과 중국인민들을 따로 갈라 부대를 꾸리게 되면 당장은 항일연군부대들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중기부터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항일연합군을 편성하고 반만항일의 기치밑에 공동투쟁을 조직전개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국경지대에 진출하여 조선혁명에 주력한다고 하여 중국인민의 항일무장부대들과의 공동투쟁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파시스트의 연합된 역량에 맞서 에스파냐와 같은 나라들에서 인민전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세력이 단결하여 싸우고 있는 때에 조중항일무장부대를 조선인부대와 중국인부대로 가른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자 않고 도리에도 어그러지는 것이었다.

우리가 중국땅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형편에서 조선 사람들이 따로 갈라져 나와 부대를 조직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지지와 도움도 종전보다 약화될 수 있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자주권이였지 분권은 아니였다. 우리는 조선사람들이 제한과 구속과 방해를 받지 않고 조선혁명을 해나갈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세력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위증민을 비롯한 중국동지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위증민은 자기가 모스크바에 다녀와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분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국제당의 의사대로 부대를 민족별로 가르기 위한 대안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거듭 말하였다.

≪위증민동지, 나는 동지의 심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그렇게 한곬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혁명의 원칙과 계급적 이익의 견지에서 고찰하여야 합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결코 어떤 협애한 민족적 이익만을 추구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의 민족적 이익은 언제나 국제적 이익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민족적 이익과 배치되는 그 어떤 국제적 이익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중항일부대, 그것도 벌써 몇해째 한 전호속에서 싸우고 있는 통일적인 무장부대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혁명에 더 유리하겠는가 아니면 민족별로 가르는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하는 것을 나로서는 심사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일무장부대를 민족별로 가르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존중해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결코 문제를 형식적으로 고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싸우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는 형식적인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증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게 되면 국제당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일연군부대에 조선동지들을 잡아둘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연군체계대로 활동하면서도 우리가 조선국내와 동북의 조선인 부락에 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 하고 중국인부락에 가서는 항일연군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군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당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동지가 그처럼 폭넓게 이해해주리라고는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아량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그것은 중국혁명에 대한 크나큰 지지로 됩니다.≫

나는 웃으면서 위증민의 손을 잡았다.

≪로위, 우리가 한두해 같이 싸웠습니까. 또 앞으로도 한두해만 같이 싸우다가 헤어지겠습니까. 중국이 우리의 이웃에 있고 공산주의이념이 승리하는 나라로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우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지, 나는 동지와 같은 조선동지들과 한 대오에서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는 **김일성**사령의 정치위원으로 되려고 합니다. 조선동지들과 더 밀접히 단합해서 조선혁명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가슴 후련해지게 웃었다.

사실 나는 남호두에서 위증민을 만난 다음부터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위증민 자신도 지난날의 실책을 놓고 늘 미안한 생각을 가시지 못해하였다. 그는 국제당 제7차대회 이후 만주지방의 당조직체계를 개편한 다음 남만성위 서기 겸 동북항일연군 1로군 정치위원의 책임적인 직책에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기간을 중국동무들이 지휘한 부대가 아니라 내가 친솔한 부대와 함께 다녔다. 그 자신이 농담삼아 말한 것과 같이 정말 내가 지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위원이 된 셈이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다. 일제의 관헌자료가 위증민(위민생)을 나의 정치위원이었다고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사실 나와 함께 장백지구에도 오래 나가 있었고 백두산 비밀근거지에도 몇번 다녀갔다.

위증민은 남호두회의 이후부터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이나 제의에 대하여 거의 반대한 일이 없었다.

반≪민생단≫투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중공산주의자들의 동맹은 남호두회의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그후에도 중국공산주의자들, 중국의 반일역량과 공동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10년 가까이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혁명을 전진시키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혁명을 적극 도와주었다. 조중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한 역사는 이렇게 1930년대초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어느 한 지도자는 조중인민의 이러한 형제적 우의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조선인민의 중국에 대한 지지는 가늘지만 길며 중국인민의 조선에 대한 지지는 굵지만 짧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작은 나라로서 오랜 기간 형제적 중국인민을 도와준 우리 인민의 업적에 대한 충심으로 되는 평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위증민과 상봉은 나의 추억속에 일생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인상깊은 사변들 중의 하나다. 그의 모스크바행이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한데서 큰 몫을 담당했던 것으로 하여 나는 오늘까지도 그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

누리에 넘치는 위인숭배열기

강철규 / 구국전선 제467호, 주체91(2002)년 2월 1일



2월이다.

올해는 유달리 벌써부터 눈석이가 시작되고 거리와 아파트단지 상가마다엔 봄기운이 완연하다.

뜻깊은 2월,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앞두고 온 누리에 넘치는 위인숭배열기로 하늘도, 바다도 설레이는 듯 싶다.

돌이켜 보면 20세기에 이어 21세기로 이어온 연대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숭배와 흠모심이 용암처럼 끓어번진 역사적 해였다.

새 세기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장, 위대한 실력가형의 지도자를 우러른다.

수수천년 인류가 그려오는 위인, 21세기 민족과 인류가 모든 것을 의탁할 위인,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 세계정치원로로 높이 모시었다.

역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고절세의 위인, 조종의 산 백두산의 담력과 기질, 천리혜안의 예지, 탁월한 사상이론과 정치적 식견, 현대과학기술을 높은 경지에서 정통하고 계시는 최고의 지성, 소탈하고 인자하며 대양과도 같은 넓은 도량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은 희세의 위인이시다.

하기에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앞을 다투어 전했다. 위인숭배의 위대한 서사시, 아름다운 교향곡을 21세기 하늘가에 장중하게 울렸다.

새 세기의 첫해, 첫달부터 위인숭배의 열풍은 전례없이 뜨거웠다.

지난해 50여개 나라에서 정당 지도자들과 정부 각료들, 정계, 사회계의 고위인사들을 망라하는 2.16경축준비위원회들이 연이어 결성되었다. 세계 6대주의 63개 나라에서 집권당과 정부의 고위급 인물들, 정당 당수들, 국제기구대표들, 각계층의 권위있고 영향력있는 인사들의 참가하에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연 3백여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러 나라 출판사들은 2월의 명절을 기념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저들을 10여개 어문으로 6천 5백여부나 단행본으로 번역, 출판했다. 세계 40여개 나라들의 1백50여개 출판보도물들이 2백50여회에 걸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특집을 했다. 올해 이 땅의 전위투사들과 변혁운동가들은 2월의 명절을 계기로 경축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글들을 연일 싣고 있다.

평양으로 가자, 평양에 가서 21세기의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워야 한다.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 각계층 민중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이다. 여러 나라의 정계 인사들, 사회활동가들, 각계층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평양행에 예약을 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유럽연합 최고위급대표단이 처음으로 지난해 5월 평양을 찾아가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다.

위인숭배의 열풍은 **김정일**장군님의 대외활동에 의해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지난해 1월에 있은 중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에 이어 7월부터 8월사이에 있은 러시아에 대한 공식방문으로 위인숭배열풍은 최절정에 달했다.

세계는 경탄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에서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을 보았다. 도덕의리의 화신,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제국주의에 사형선고를 내리시는 백두산장군의 불세출의 위인상에 민족과 인류는 아낌없는 찬사를 표시했다.

러시아의 주요 출판보도물들이 연 800여회에 걸쳐 보도했으며 세계 1백50여개 나라 TV방송들이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시청율이 가장 높은 시간에 특대소식으로 방영했다. 매일 세계 50여억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권위있는 정치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세계정치지도를 변화시킨 대사변이라고 평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위인열풍은 지구촌 그 어디에서나 뜨겁게 일고 있다.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배우기 위한 연구토론회, 강연회, 학습회 등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페루와 에콰토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 단체들이 **김정일**장군님께 명예칭호와 시민증, 상장과 메달들을 수여해 드리었다.

2월의 명절을 눈앞에 둔 지금 위인숭배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50여개 나라에 조직된 2.16경축준비위원회들이 영화감상회, 사진전,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를 진감하는 위인숭배의 이 위대한 열풍은 21세기를 이끌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게 된 인류의 다함없는 격정과 환희의 분출이라 하겠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북만은 그 어떤 압력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선군의 총대로 자기의 길을 빛나게 개척하고 있다.

광풍은 몰아쳐도 태양은 빛나며 붉은기는 더욱 힘차게 나부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휘황한 빛을 뿌리고 있다.

하기에 인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경모하면서 휘황한 내일, 자주화된 세계를 그려보고 있다.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모신 끝없는 민족적 자긍심을 깊이 간직하고 위인숭배의 열풍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 방영!

통일여명 기자 한영희 (통일여명 보도 54호 주체91, 2월 5일)



2월 3일 저녁 11시, 문화방송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기록영화를 방영하였다.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기록영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이 진실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 기록영화로 인해 그간 미제와 공안당국에 의하여 조작되었던 ≪**김일성**장군가짜설≫의 허구성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이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투쟁업적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실로 확인되었다.



제작측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다니신 길림육문중학교와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안도, 대표적인 유격근거지와 전적지인 소왕청과 홍기하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하고 인터뷰를 하였으며 주석님께서 친히 전개하신 보천보 전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줌으로써 주석님의 위대성이 부각되게 되었으니 제작자의 노고는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대한 주석님의 항일역사를 심히 축소하고 미제가 자행한 6.25전쟁을 남침으로 왜곡한 사실은 제작자의 인식상 한계와 보안법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온갖 극우논리가 횡행하는 이남사회에서 위대한 주석님의 항일투쟁업적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젼에 공공연히 방영된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다. 이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 마련하여 주신 6.15공동선언의 위대한 생활력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민족민주운동이 전진하고 보안법이 철폐되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일체의 왜곡과 축소 없이 있는 그대로 방영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적시었다. 하루빨리 위대한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을 관철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셔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지난 1월 30일 미국대통령 부시는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테러와 억지로 연관시켜 힘으로 압살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부시는 우리 나라가 대량살육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함부로 걸고 들면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에 대해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 등 갖은 악담을 다 쏟아 놓았다.

부시는 계속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폭언하였다.

집권초기부터 우리에 대한 망발과 험담만을 일삼아 온 부시이지만 그의 이번 망발에는 명백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앉으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국제관계가 전례없이 소란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행정부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심각한 경제불황이 나타나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미국방성청사에 대한 대규모습격사건이 일어났으며 행정부가 연루된 대형부정추문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시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외정책과 정치적 미숙성, 도덕적 부패성에 기인된다.

현대테러공격의 화살이 왜 미국으로만 쏠리고 있으며 왜 부시의 집권시기에 와서 극심해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은 모든 화근이 부시행정부의 무분별한 강권정책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흑백을 전도하여 자기의 반동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산생된 국내외의 모든 비난을 ≪테러≫의 탓으로 돌리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부시가 이번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쳐보려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내놓은 것이다.

근래의 조미관계역사에 미국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다.

새해에 들어선 연초부터 부시의 입에서 이처럼 험악한 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우리는 무심히 지나칠수 없다.

부시의 망발은 최근 미국이 들고 나온 우리와의 ≪대화재개≫제안의 속심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때문에 현 미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때 만들어 놓았던 대화를 통한 핵, 미사일문제해결의 가능성까지 다 줴버렸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할 기도를 공개표명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취해 온 입장이 얼마나 정당하였으며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그쯘하게 갖추어 놓은 것이 얼마나 선견지명한 정책이였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심상치않은 움직임에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주제넘게 줴치기 좋아하는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웅적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압살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

주체91 (2002)년 1월 31일
평양

한미간의 전쟁공조책동, 날로 노골화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9일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침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행정부의 호전광들이 꼬리를 물고 방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3명의 미국회의원들은 미국이 이북을 걸고들며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지지자들이고 17일에 방한했던 미하원부의장을 비롯한 공화당패거리들은 악명높은 주적론자들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방장관과 미합참의장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오는 2월중순경 호전광 부시가 전쟁사환군들을 데리고 방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땅에 날아드는 자들마다 찾는 곳은 미군기지들과 최전방군부대들이고 그들이 벌이는 꿍꿍이들은 한미군사공조체제강화를 위한 ***전쟁모의뿐입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매국배족적 행위라 하겠습니다.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의 출범으로 이 땅에는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고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설 위험마저 안고 있습니다.

부시는 백악관에 들어앉자마자 있지도 않은 이북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재래식무기감축문제까지 걸고 들며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동족간의 대결을 조장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9.11사건이후에는 한반도에 기동타격미군을 급속히 전개하는 것으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운운하는 것은 다음 테러전쟁의 다음 목표는 이북이라는 도발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무력적인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북침을 위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수수방관할수 없는 위험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을수 없는 것은 9.11사건이 일어나자 전역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정세를 긴장시켜 남북관계를 교착상태에 몰아넣은 군당국자들이 새해에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합세해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외세와의 공조는 매국이고 동족과의 공조는 애국입니다. 그런데 함께 손잡고 통일해야 할 동족을 주되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북압살을 노린 미국의 책동에 적극 가담하며 반북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공조해 나선 군부호전집단을 어떻게 그대로 둘수 있겠습니까.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며 이 땅에서 민족분열과 대결을 끝장내려는 것은 7천만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이자 확고한 결심입니다.

지금 경향 각지에서는 미국과 그에 야합해나선 반통일호전세력들의 전쟁공조책동에 분격한 각계층 민중의 분노의 함성이 줄기차게 터져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간고한 반미자주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하며 이 땅에서 주한미군과 모든 전쟁장비들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합니다. 또한 한국의 현당국자들은 미국과의 전쟁공조책동을 즉시 중지해야하며 동족과의 공조로 6.15공동선언이행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무부차관이라는 자가 이북을 걸고든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30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미국부부차관 존 볼튼은 최근에 있은 유엔군축회의에 나타나 이북을 걸고들며 핵사찰수용촉구니 대량살인무기개발이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 궤변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북이 1994년에 체결된 ≪핵무기해결을 위한 북미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건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북은 이미 북미기본합의문에 명기된대로 중수로원전발전소 가동을 동결시켰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여 핵문제투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핵사찰성원들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핵문제로 말하면 이북이 미국에 대해 따져야하는 문제죠.

저들은 1994년에 체결된 ≪북미기본합의문≫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합의문이행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원자력발전소건설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그 원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물론 그 기간에 보장하게 돼있는 중유도 제대로 대주지 않아 이북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이 땅에 1천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이북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끈질긴 대북고립압살책동으로 이북을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행정부출범이후 미국은 이북에 대한 강경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 한편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 땅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을 일삼으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으로해서 북미기본합의문은 휴지장으로 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한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위협, 전쟁위협의 장본인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인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무부차관이라는 자가 이북에 대해 핵사찰수용이니 뭐니하고 떠든 것이야말로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망발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미국무부차관의 망발을 두고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으로, **적인 망동으로 규탄배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같은 뻔뻔스러운 행위가 저들의 대북강경북침전쟁책동을 정당화하고 북미기본합의문이행파탄의 책임을 이북에 넘겨씌우려는 목적밑에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흑백을 전도한 기치를 내들고 자행되는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이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민족공조로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 할줄 압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공조책동, 갈수록 심해져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31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한미호전집단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져서 내외민중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관해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은 이미 벌써 한반도가 분단된 때로부터 자행됐다고 하겠죠. 아시겠지만 이 땅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언제까지나 장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해서 이북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것, 이건 미국의 변함없는 대아시아침략전략이 아닙니까. 힘에 의한 승공통일은 이 땅에 있는 호전집단의 변함없는 대북전략이고 이런 목적의 공통성으로해서 한미호전집단들은 벌써 분단직후부터 시종일관 북침전쟁을 위해 공조해왔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범죄적인 공조책동이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새해들어서 아주 우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선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을 위한 전쟁모의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서 잘알수가 있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이 이북을 걸고들면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적극적인 지지자들로 알려진 3명의 미국회의원이 지난 3일 내한해서 한국의 호전분자들과 한미군사공조체제강화에 대해서 모의를 했고 17일에는 악명높은 대북주적론자들인 미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패거리들이 한국에 날아들어 이 땅의 호전세력들과 북침을 위한 전쟁공조강화에 대해서 모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내각의 우두머리인 미국방장관 럼스펠드와 미합참의장이 내한해서 한국 군부호전집단과 일련의 전쟁모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월중순에는 침략전쟁의 수괴인 미국대통령 부시가 직접 서울에 행각해 한국의 고위호전분자들과 북침을 위한 전쟁모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는 미국이 1차적으로 북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 새해들어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이 더욱 우심하게 자행되고 있는 건 미국이 이북을 걸고 더욱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서도 잘알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부시행정부가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공격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이른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새해에 들어 그 책동을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 부시행정부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정하고 미국방부안에 미사일방위 제일을 맡아보는 부서를 승격시켜서 미사일방위국을 내왔고 북의 미사일공격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한반도상공을 작전무대로 하는 공중레이다무기개발 등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무려 57%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미연합사령부안에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까지 내왔어요.
이번에 이미 내한했거나 내한할 미국호전분자들이 한국호전계층과 중요하게 밀담했거나 하려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한국호전집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자 : 실제로 한미호전집단은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서 깊이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에 이용되는 스탠다드미사일 수직발사체계인 ≪엠케이41≫을 한국에 넘겨주기로 했고 북한 근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해야한다면서 우리 나라 동해에 최신형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 2척을 배비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호전집단은 자체로 이같은 이지스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욱이 간과할수 없는 건 한미호전집단들이 미사일방어체제의 핵심장비로 되고 있는 미사일 요격레이다를 이 땅에 끌어들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난해에 있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군사적 가치를 상실했거나 필요없게 된 일부 주한미군기지들을 반환의 명목으로 한국에 돌려주는 대신 평택, 오산, 의정부 등 전연과 가까운 부대들과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들만 골라 제공받기로 한 것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따른 병력의 재배치를 위한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사회자 : 한미호전집단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은 부시행정부가 미국에서 9.11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구실로 불순한 목적이 숨어있는 이른바 ≪반테러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단행하자 한국호전집단이 그 이후에 있을수 있는 테러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전역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정세를 격화시킨데서도 드러났고 또 ≪주적불변론≫을 제창한 국방부장관 김동신이 ≪올해에는 한미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데서도 잘알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래서 한미호전광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고폭격에 사용했던 미사일을 광주에 처음으로 배치하고 한반도 유사시 69만여명의 증원무력과 각종 함정 160여척, ≪에프18≫전투폭격기 등 1600여대의 비행기를 전개시키기로 한 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이죠. 이에 편승해서 한국호전집단도 새 회계년도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각종 미사일과 함정, 최신형전투폭격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등 한미군사당국의 호전적 공모책동은 최근들어와서 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던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세와의 공조는 매국이고 동족과의 공조는 애국입니다. 그런데 함께 손잡고 통일해야할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북압살을 노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적극 가담하며 반북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공조해나선 이 땅의 군부호전세력이야말로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민중이 미국 부시행정부의 범죄적인 대테러전쟁확대책동에 야합해나선 이 땅의 호전세력의 공모결탁행위로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엄중한 위기에 직면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분격을 표시하며 한미호전세력들을 단죄규탄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죠. 대결은 전쟁이죠. 그리고 전쟁은 민족공멸이라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명백한 건데 우리 민중은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봅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중이 한미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을 저지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없고 또 6.15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이행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회자 : 한미호전집단은 범죄적인 북침전쟁공조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인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켜야하며 우리 겨레의 자주적 통일에 더이상 난관을 조성하지 말아야합니다.

각계 민중은 한미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화제의 초점≫ 여기서 마칩니다. ≪구국의 소리≫방송입니다.

미국대통령 부시, 호전적 망발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2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시는 지난달 30일 ≪연두교서≫를 통해 이북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면서 세계를 숨죽이게 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했습니다. 그야말로 늑대가 양을 보고 악한이라고 비난하며 매를 드는 것만치 어리석고 파렴치한 궤변이라 하겠습니다.

도대체 세계에 미국처럼 엄청나게 많은 대량살육무기를 가지고 남을 위협하는 나라가 어디 또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인류를 열번도 죽이고도 남을 약2만개의 각종 핵탄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배비한 핵무기만도 1천여개나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생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고 그것과 핵탄을 날려보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운반수단을 갖고 이북을 비롯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항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북을 정치경제적으로뿐 아니라 힘으로 압살하려하면서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해왔습니다. 이같은 책동은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욱 우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것도 그 1차적 목적이 바로 북침에 있는 것입니다.

부시행정부는 ***에 대테러전쟁을 확대하려하면서 다음번 공격목표가 이북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전적 폭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북이 있을수 있는 미국의 공격에 대처할수 있는 필요한 무장장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며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자위적 권리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북을 힘으로 압살하려하는 한편 북침전쟁위협을 부단히 조성해 이북으로 하여금 자위를 위한 국방력강화에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을수 없게 해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을 주어 이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미국의 정당한 자위적 무력강화조치를 시비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를 비롯해 미국 호전광들이 있지도 않은 핵위협과 미사일위협설을 떠들며 이북을 헐뜯는 것은 저들에게 쏠리는 국민들의 증오에 찬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비롯한 북침전쟁책동을 합리화하며 이북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쟁의 원수, 평화의 원수이며 악한중의 악한이라는 것을 웅변합니다.

부시행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하며 내외민중의 요구대로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부시행정부가 내외민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끝내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반드시 값비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
국회에서 매국배족적 망발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5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느니 이북은 미사일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야말로 사대매국노의 매국배족적 망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미국대통령 부시가 미의회에서 한 연두국정연설을 통해 이북을 대량살상무기개발국이라고 하면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비난해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회창이 국회에서 상전 부시와 똑같은 말을 지껄였으니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치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난달 이회창이 미국을 행각해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올리면서 이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 등에 대해 떠들어 우리 겨레로부터 더러운 개질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회에서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들

고 나와 이북을 맹비난한 것은 지금까지 *****없는 일로써 오직 사대매국과 반통일근성이 골수에 찬 이회창만이 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북에서 핵무기와 생물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고 또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통해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있지도 않은 문제를 코에 걸고 이북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 것은 바로 미국 상전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잘보여 어떻게하나 차기 대권을 장악하려는데 그 흉악한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우리 민족에게 무서운 핵전쟁을 강요하려는 장본인이 바로 미호전계층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북을 침공하고 한반도전체를 장악, 지배하려는 목적아래 북침전쟁준비를 가속화해온 미국호전계층은 미국의 테러를 방지한다는 구실로 이북을 침공하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부시가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북에 대한 **과 *** 폭언을 한 것은 이걸 웅변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고 평화가 보장될수 있은 것은 바로 선군정치로 미국의 전쟁도발을 막은 이북 때문입니다. 이북이 아니였다면 한반도에서는 미국에 의해 무서운 핵전쟁이 일어나 잿더미가 됐을 것이고 이회창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노라하는 이회창이 이걸 모를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북을 악랄하게 헐뜯는 것은 이회창이야말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대결에 키질을 하는 극악한 반통일 사대매국노, 역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제의 검찰서기 노릇을 하면서 개질을 한 그의 애비처럼 더러운 집권욕을 채우기 위해 미국에 개질을 하면서 겨레의 통일염원을 짓밟고 민족에게 무서운 핵재난을 덮씌우려는 이회창을 우리 겨레와 민중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각계 민중은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이고 통일의 원수인 이회창을 정계에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 전문가들이 북과 이란관련 부시 발언비판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북과 이란을 이라크와 함께 대량파괴무기를 개발중인 ≪악의 축≫에 포함시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지가 31일 보도했다.

유에스에이투데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 이란 및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명시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을 대량파괴무기개발 국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외교정책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이들 3국중 어느 나라도 미국에 대한 최근의 테러공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정권을 ≪악마≫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지만 여기에 북과 이란을 싸잡아 넣은 것은 잘못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센터의 군축전문가 토니 코즈먼씨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의 관계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클린턴 행정부가 열어놓은 대조선 관계의 대안을 폐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군축전문가 리 페인스타인씨는 부시대통령이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대한 ≪선제공격≫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공격받기를 기다렸다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들 3개국은 매우 다른 나라들이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밖에 조지아대학 부설 국제문제연구센터의 박 한 소장은 부시대통령의 발언이 그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김대중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통신 2002/02/02

부시발언 비판 전세계 확산

유럽 · 중 · 러 ≪일방적 군사행동 우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이들 국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럽과 중국 · 러시아 등 주요국들과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행동에 의한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에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전쟁을 통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38개국의 외무 ·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안보회의에서 중국 외교부의 왕이 부부장은 2일 ≪미국은 대테러 전쟁의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이 전쟁에서 (미국 대신) 유엔과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 · 이라크 ·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부시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3개국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하일 카샤노프 러시아 총리도 이날 백악관에서 딕 체니 미 부통령과 만나 ≪아직까지 ≪악의 축≫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유럽연합은 이란과 함께 일할 것이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결정들을 독자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은 1일 미국 ≪엔비시 방송≫과의 회견에서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말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을 중단하게 할 검증가능한 합의 가능성을 협상 테이블에 남겨 놓았는 데 (부시 행정부가) 이런 가능성을 버리는 것은 실수≫라고 비판했으며, 잭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은 2일 ≪기아로 300여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국민총생산 감소와 전력 부족 등에 시달려 미국에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없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 위협을 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은 이날 부시 대

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군사력의 확대로 테러를 이길 수 없으며, 전쟁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승수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미대사관이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날 휴전선에서의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철수와 미사일 수출 중단을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극히 비외교적 언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대 테러전쟁의 개념상의 확전으로 북한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같다≫ 고 지적했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한겨레신문 2002/02/04

공동실천, 반전평화기자회견



31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미 대사관 앞.

≪당신들, 지금 불법행위 하는거야!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야? 왜 사람 가는 길을 막고 그래?≫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똑같은데 이 길로 가세요≫

부시방한 항의서한과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요구하는 범국민서명 용지를 전달하려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대표단과 경찰사이에는 이렇게 미 대사관으로 가는 길 3미터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표단은 바로 앞 경찰이 막고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경찰은 한쪽 옆으로 돌아 미 대사관으로 가라고 해 서로 마찰을 빚었다. 참가자들은 ≪왜 한국경찰들이 미 대사관에 과잉충성을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자존심이 상해 도저히 안되겠다≫며 미 대사관 직원이 직접 서명을 받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마찰은 약 1시간가량 계속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심한 욕설과 기자들의 취재까지 방해해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결국 대표단의 요구대로 경찰이 길을 열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은 상자 4개 분량의 서명용지와 부시방한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 경비책임자에게 전달했다.

한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반전평화서명용지 전달 및 부시방한 항의서한 미 대사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반전평화공동실천 활동 경과보고와 미국정부에게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과 평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낭독으로 이어졌다.

공개서한을 통해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미국이 확전시도를 중단하고 패권적인 정책을 수정할 것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부시의 연두기자회견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분단고착화 정책과 무기강매 등의 부시방한 목적이 변경되지 않을 시 범국민적인 부시방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지난 해 11월 600여개 사회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지금까지 반전평화 범국민대행진, 총 51,651명이 서명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요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기자회견과 전달식은 최근 부시가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한 것을 포함, 잇단 강경발언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시점에서 열려 향후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끌었다.



장동렬 기자
통일뉴스 2002/02/01

전쟁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방한 저지와 GM규탄 반미결의대회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계기로 사회각계 각층에서 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는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쟁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 방한저지와 GM규탄 반미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 학생, 빈민, 청년, 사회단체 회원 등 각계각층이 모여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한 규탄과 방한 반대의 의지를 모았다. 이날 집회는 최근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발여론이 높은 가운데 진행된 탓인지 시종일관 미국에 대한 규탄의 분위기로 뜨거웠다.

사회를 맡은 김종일 자통협 집행위원장은 ≪최근 부시가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짓에 다름없다≫며 ≪부시방한 반대 투쟁은 민족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다≫고 주장했다.

대회사를 통해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도 ≪우리 노동자, 아들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김대중이다. 하지만 김대중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부시다≫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부시의 방문을 온국민이 힘을 모아 막아내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는 대우빌딩 12층을 점거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대우자동차 판매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전병덕 판매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대우자동차를 GM사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라며 대우차 해외매각과 미국의 경제침탈을 규탄했다. 또, 전병덕 위원장은 ≪부시가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나갈 때는 제 발로 걸어나가지 못할 것이다≫며 부시방한 반대 투쟁의 강한 의지를 보여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집회는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김종철 준비위원장이 미국의 무기강매반대와 미군기지 철수 촉구의 발언을,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이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을 막아내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미국의 확전 기도와 무기강매 중단, 북-미 관계 정상화, 지엠(GM)의 부당해고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오후 4시경 마무리되었다.

한편, 주최측은 앞으로 △부시방한 반대 국내외 공동기자회견 △미대사관과 용산미군기지 앞 부시 방한반대 1인시위 △각계인사 시국선언 및 행진 △부시방한 반대 시국농성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시가 방한하는 19일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성남 공항부터 부시가 떠나는 날까지 ≪그림자 투쟁≫을 전개하고 20일에는 전국 집중으로 수만명의 대규모 부시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부시의 방한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렬 기자
통일뉴스 2002/02/02

시민사회단체 부시규탄 성명 잇따라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 발언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민족회의(상임의장 배다지)는 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부시와 그의 참모들의 입에서 강도높게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발언들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민족회의는 ≪부시정부에 대한 규탄과 자극적인 발언 중단 촉구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의 자주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 졌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KYC(한국청년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게 대화 파트너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긴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통일연대는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세계 평화위협 전쟁을 계속 일삼는다면 미국이야말로 극악무도한 악의 축, 만악의 근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세계의 반제자주.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전농도 성명을 발표하고 부시 발언을 규탄하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전국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살상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생산판매까지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며 미국은 악의 전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밖에도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상임대표 박진석 목사),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 반미여성회(준), 실천연대 등도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를 높이는 한편, 전국민중연대는 2일 오후 반미결의대회를 개최해 부시 방한을 저지 투쟁을 결의한다.

대학생들도 부시 방한에 맞춰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시 방한을 앞두고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 외무성도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오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
통일뉴스 2002/02/02

민주노동당, 부시방한규탄 긴급기자회견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규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5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부시방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수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상임의장은 발언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민족의 원수≫라며 ≪미국이 전쟁도발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전세계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순보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이번 부시의 망언은 무기강매의 암수≫라고 지적한 뒤, ≪전투기를 팔러 이 땅에 들어오는 부시의 방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전쟁광 부시의 망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미국의 초강경 발언이 온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세계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핵≫이다≫고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동당은 부시 미 대통령에게는 △전쟁발언 중단과 북-미대화 재개 △남한의 군사 작전지휘권 반환 △전투기 강매 중단을, 한국정부에게는 민족의 자존을 걸고 부시의 방한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천영세 사무총장,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 이승헌 자주통일국장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미대사관으로 향했지만 경찰이 저지하자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승헌 자주통일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항의하러 가는데 왜 한국경찰이 막느냐≫며 ≪경찰이 미국에 과잉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선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전쟁은 선포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며 ≪평화의 이름으로 오늘 미국에게 전쟁을 선포한다≫고 발언해 참가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미대사관에 가지는 못하고 항의서한을 불태우는 것으로 기자회견은 끝이 났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발언을 두고 사회의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렇듯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움직임이어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장동렬 기자
통일뉴스 2002/02/05

부시방한 저지,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시민사회단체, 부시방한 반대 합동기자회견 가져



오는 19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항의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6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대사관 옆에서는 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6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부시방한 반대 제 민주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요하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목소리로 시종일관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봄은 왔는데 부시는 전쟁을 몰고오고 있다≫며 ≪부시 방한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오종렬 상임의장은 ≪경찰들이 미대사관 가는 길을 계속 폭력적으로 막고있다≫며 ≪오늘 경찰들이 하는 일은 매국행위로 낱낱이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경찰의 저지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어 조희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1월 24일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반미연대기구들이 부시방한반대 방안 논의를 시작해서 오늘 603개 시민사회단체들의 합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방한저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문정현 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주최측은 △전쟁확대 중단과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MD강요, 전쟁무기 강매 중단 △미군기지 반환 △미군범죄 사과와 소파협정개정 △6.15 공동선언 실현 방해 중단 △한미공조 중지 등의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최측은 △부시방한 반대 설 귀향선전전 △1인 릴레이시위 △16일 부시방한 반대 전국동시다발 집회 △18일 한반도 평화선언 대회 △부시방한 반대 시국농성 △부시방한시 그림자 투쟁 △20일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한일연대사업 △부시방한 반대 캠페인 등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와 미대사관 측의 접수거부로 전달에는 실패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시각, 미대사관 앞에서는 김성호, 송영길, 허운나, 김원웅, 안영근의원 등이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언과 관련해 주한 미부대사와 면담을 하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돼 취재진들의 관심이 순간 집중되기도 했다.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은 면담 내용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방한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것이고, 부시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의 논의 없이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소≫에서 17일 부시 대통령의 일본방문에 맞춰 주일 미대사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 전해져 부시의 동아시아순방 기간에 한.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끈다. 또, 이날 기자회견은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후 거세게 진행됐던 각계각층의 부시방한 반대의 움직임들이 단일한 행보로 모아지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향후 부시 방한저지 움직임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인들도 미 대북강경정책 비난

작가회의, ≪한국 문제 독단처리, 미국 혈맹 아니다≫



6일 오전 11시 마포구 아현동 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 현기영, 이하 작가회의) 사무실. 반미소설의 고전(古典)이라 할 ≪분지≫를 쓴 원로 소설가 남정현(70)씨가 입을 열었다.

≪만에 하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는 남한을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한반도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협박 앞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동조는 민족의 이름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힘의 논리에만 기댄 미국의 제국주의정책은 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선(善)이 무엇인가? 약자에 대한 배려 아닌가?≫

작가회의가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지난 달 29일 미 의회연설을 비판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시의 발언으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또 한 차례 전쟁 직전의 악몽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회견장에는 남정현 씨와 현기영 이사장을 비롯, 이경자 부이사장, 김영현 자유실천위원장, 강형철 상임이사 등 10여 명의 작가들이 참석했다.

강형철 상임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작가회의는 74년 설립(당시 명칭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참여의 목소리를 내온 단체≫라는 것을 강조하며, ≪민주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지난 달 26일 총회의 결의에 입각,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현 자유실천위원장이 읽은 성명서에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것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민≫이라는 사실의 주지, 이와 관련한 ≪대승적 인식전환≫이 없다면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뜻이 완곡하게 드러나 있다.

미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된 아프가니스탄과 기아선상으로 내몰린 아프간 난민들을 통해 분노에 사로잡힌 미국의 광기와 완력을 보았을 뿐, 어떠한 연민도 자기반성도 보지 못했다는 것과 ≪반세기 전 한국전쟁의 와중에 저지른 노근리 사건을 위시한 무수한 한국 민간인 학살행위를 재현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물음도 성명서에 포함된 내용.

작가회의는 ≪힘겹게 싹을 틔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의 정략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혈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미국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독단처리가 강행될 경우 ≪반미문학의 밤≫ 등의 행사를 가지는 것은 물론, ≪미국의 반평화적인 행위를 청사에 새기는 자세로 꼼꼼히 기록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성식 기자 hss@ohmynews.com

여야의원 16명 ≪부시 밀어붙이기 심각한 우려≫



정치개혁의원모임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들 16명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 강경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의 대북 강경발언은 클린턴 정부 이후 힘겹게 쌓아온 북-미 사이의 회담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6 · 15 정상회담 이후 발전돼온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협의나 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군사적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부시 대통령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시 대통령의 선동적인 연설이 9 · 11 테러를 빙자해 긴장을 강화시켜 4천억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증액을 합리화하고, 최근 제기된 엔론 사태 등의 의혹 국면을 회피하며 올 가을 상하원 선거 승리를 위한 정파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3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성명서에는 이밖에도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나 세계전략에 따른 선제공격적 전쟁확대 반대 △우리 민족의 문제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 존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의 평화적 진전 기대 등이 담겨 있다.

개혁성향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6일 미국 대사관을 통해 부시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19일 부시 대통령 방한 전에 국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김성호 · 김태홍 · 박인상 · 송영길 · 이재정 · 이종걸 · 임종석 · 정범구 · 허운나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부겸 · 김영춘 · 김원웅 · 김홍신 · 서상섭 · 안영근 · 조정무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이 참여했다.



김보협 기자bhkim@hani.co.kr

정치권 부시발언 비난확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한 강경발언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김근태 김민석 김태홍 김희선 문희상 허운나 등 민주당 의원 50명은 5일 성명서를 내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구축되어 가는 한반도의 화해·교류의 기본틀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미국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어떠한 테러에도 반대하지만 유엔의 결의가 수반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이나 세계전략에 따른 선제공격적인 전쟁 확대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강성구 강현욱 고진부 곽치영 김경재 김성순 김성호 김원기 김택기 김화중 문석호 박상규 박인상 박주선 배기운 설훈 송석찬 송영길 신기남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윤수 이재정 이정일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성민 장영달 정대철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장선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한천 천용택 천정배 추미애 의원이 서명했다.

◇…국회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영달, 책임연구의원 안영근)도 성명서를 내어 ≪객관적인 근거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창식 기자cspcsp@hani.co.kr

≪미, 햇볕정책 흔들지 말라≫

김근태 민주고문 국회연설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은 5일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햇볕정책을 흔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밝히고, ≪남북의 신냉전과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또 ≪오는 19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도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미국 행정부가 범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민주화가 이뤄질 만하면 안정을 중시한다면서 독재세력의 손을 들어줬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며 미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김 고문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미국 고위층을 만나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북강경론자들과 손을 맞잡는 등 구시대 냉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김보협 기자bhkim@hani.co.kr

부시에 단호히 맞서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

한-미 관계에서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또한번 당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전세계는 당신이 오는 19일부터 그를 만나면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 그와의 의견차이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힐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은 부시 대통령의 도발적인 대북정책이 한국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렵니까? 두 나라의 동맹은 오직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한국과 협의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렵니까? 아니면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어 미국이 북한한테 ≪광범위하고 가속화한≫ 핵사찰을 받으라는 압력을 강화할수록 지속되기 어려운 겉치레뿐인 일시적인 단합을 위해 의견 차이를 접고 고개를 숙이려 합니까?

일부 관측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강조한 것은 오직 ≪엔론추문≫에 쏠린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국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실제 행동은 없을 것이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강경파인 부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려면 보수적인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가 1월31일치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극작가가 제1막에서 탁자 위에 총을 올려놓았다면 영리한 배우는 극이 끝나기 전에 그 무기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안다≫고 썼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정보는 북한의 비밀스런 핵 증강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침에 대한 남한의 두려움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이런 두려움은 이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진배치한 장거리 중화기들의 위협은 남한에 이들 중화기의 탄도를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현대화한 방사포를 배치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중화기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서울 공격을 무력화 하게 되면 ≪**김정일**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하며 핵무기를 만드는 주요시설들을 우리의 B-52 폭격기들이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의 축≫은 부시 행정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3명의 강경파로 이뤄진 이들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딕 체니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루이스 리비, 존 볼튼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이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파이어의 위협은 분명 이들로부터 나왔고, 이들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시설들 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를 ≪제거≫하려는 빌미를 찾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틀림없이 (한국에 와서) 미국의 군사위성들이 북한의 비밀스런 핵증강에 관한 증거를 포착했으며, 자신이 거칠게 말한 것은 북한에 충격을 줘 광범위하고 가속화한 핵사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당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안다. 그런 위협과 압력은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를 나는 권합니다.

또 제네바 합의의 요구보다 ≪광범위한≫ 핵사찰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경제·정치적인 반대급부를 줄 준비가 있어야만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금창리지역을 접근할 때 취했던 방법입니다. 북한은 전기와 식량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미국이 액화천연가스 터빈용의 형태로 전기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 또 남는 석탄 제공과 같은 남한 에너지 지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철회한다면 북한은 광범한 핵사찰에 관해 기꺼이 협상하려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은 북-미 대화의 최종 목표가 관계정상화라는 사실을 분명히함으로써 핵사찰의 협상무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

해서는 2000년 10월12일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양국은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기구의 핵사찰 ≪가속화≫와 관련해서는 당신은 이런 조처들이 94년 제네바 핵동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쪽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시 합의는 명기된 장소 외의 의심받는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언제 허용해야 할지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제네바 합의 4조3항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원자력기구와 합의한 안전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합의는 2003년까지 원자로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완료≫되는 시기도 일러야 2006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때까지 사찰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사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난해 5월30일 제가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만나 핵사찰에 관한 타협안을 제안하자 그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경수로 1기 사업의 ≪상당 부분 완료≫ 시기까지는 8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공급협정 부속 합의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8단계로 나눠 경수로 건설계획의 각 단계별 공정완료와 직접 연계짓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제안이 식량 지원 등과 결합된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광범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서 핵사찰 문제를 다루는 데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한테 핵사찰 타협안을 제안하며 당신은 94년 합의사항 가운데 어떤 게 이뤄졌고 어떤 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상기시켜야 합니다. 기존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핵물질 추가생산 금지는 지켜졌습니다. 이런 조항의 준수 여부와 핵동결 전에 생산된 핵물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기구는 사찰을 했습니다. 94년 합의는 3조1항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거하는 등 조처들을 취한다면 북한 또한 기존 핵시설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설 건설계획 역시 중단하도록 돼 있으나, 미국은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일본이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미국과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철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한반도 비핵화 제안을 했으며, 지금 부시 대통령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91년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아들이 이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조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이 99년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북한의 강경파들은 이제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조처가 아무런 이득도 없었다며 시험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은 어리석고 자기파괴적인 행위가 되겠지만 만약 당신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지 못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내 당신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은 내년엔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한테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당신의 충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으며 당신의 입장을 한국과 미국의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최선의 방어야말로 좋은 공격이 될겁니다.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

공갈연설은 그만두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부시의 국정연설에 대하여 말한다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논평

2002년 1월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연방의회 상하양원 합동연설에 나선 미국 대통령 부시는, 부시 정권이 어떻게 인류의 양심에 도전하고 있으며 전지구적인 재앙을 재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드러냈다.

부시는 그 연설에서 이른바 ≪반테러전쟁≫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런데 부시는 ≪반테러전쟁≫을 확전하겠다고 떠들면서도, 지난해 9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했던 테러는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는다. 부시 정권은 그러한 근본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미국 인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있다. 부시 정권은 이 지구 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하필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그토록 테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미국 인민들이 알지 못하게 은폐하면서, 침략전쟁을 미화 · 찬양하는 행위를 애국주의라고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부시 정권의 은폐 · 기만정책에 의해 무지몽매한 상태에 빠져있는 미국의 청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침략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으며, 미국의 노동계급은 자기들이 생산한 막대한 물자가 불의한 침략전쟁에 동원되는지조차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일터로 나서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부시 정권은 미국 인민의 참된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권력기관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미국을 악의 제국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 인민의 정치적 의사에 부합될 수 없으며, 미국 인민의 이익과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모든 자본주의나라의 정권들이 그러한 것처럼 부시 정권도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의 이익에 반하여, 한 줌도 안 되는 대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류의 양심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대로, 9월 11일에 일어났던 테러사건은 아랍나라들의 주권을 짓밟으면서 그 나라 인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강요해온 미국의 국가테러에 대한 반격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전세계 약소민족들과 그 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양민학살, 내정간섭과 군사적 점령, 자원약탈과 구조적 착취, 이것이 악의 제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국가테러의 본질이다.

부시가 그 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미국의 경제는 구조적인 파탄위기에 자꾸 내몰리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자본주의제도 속에 내장되어 있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팎의 조건과 상응하면서 마침내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과 제국주의적 약탈의 무제한성은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을 불러오고 그로써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기파멸적 운동법칙이 아닌가. 거기에 더하여 20세기말부터 급격히 발달한 기술정보산업이 생산의 무정부성과 약탈의 무제한성을 더욱 가속적으로 추동함으로써 생겨난 미증유의 생산력 증대라는 결과는 지금 미국의 경제를 비약적인 성장이 아니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파국으로 떠밀려 갈 때마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에서 탈출구를 찾았다는 것은 20세기 현대사가 증거하고 있는 바다. 지금 부시 정권이 ≪반테러전쟁≫을 확전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비틀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악의 제국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테러를 반대하는 구실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세계 곳곳에 침략군을 주둔시켜 지구를 완전히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보자는 것이 부시 정권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정치 · 군사적 지배영역을 전지구적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주공간에까지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것이 부시 정권의 지배주의적 본성이



다. 악의 제국이 전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자기들의 지배영역을 전세계적 범위로 확장하겠다는 야욕의 발로이며, 전지구적 범위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것도 역시 첨단무기로 지구와 우주공간을 점령해보겠다는 야욕의 발로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악의 제국이 자기의 야욕을 추구하는 데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나서는 것은 최전선에서 악의 제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이란, 이라크는 제2선에서 버티고 있는 반미국가들 가운데 속한다. 이란, 이라크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다만 미국이 아랍진영을 견제하기 위해 깡패국가로 중동지역에 들이밀어 놓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세계를 지배 · 약탈하기 위해 날뛰고 있는 악의 제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맞서서 대결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 위에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부시가 그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공화국, 이라크공화국 이 세 나라가 이른바 ≪악의 차축(axis of evil)≫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껄였지만, 그 세 나라 가운데 정말로 위협을 느끼는 나라, 최대의 적대국을 지목하라고 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 것이다.

부시 정권의 국가정보기관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란, 이라크 같은 반미국가들과는 수준과 질을 달리하는 나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악의 제국에 대한 공격의지와 타격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덤벼들기만 하면 준비해놓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어 일격에 치명타를 입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미제가 조선에서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그 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려 단매에 쳐부시고 아예 전쟁의 화근을 들어내고 조국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언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악의 제국이 제아무리 위협과 공갈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나약하고 비겁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은 지난 조 · 미 대결시기에 이미 전세계 앞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공갈연설 몇 마디로 협박이나 해보겠다고 떠드는 것은 얼마나 가소로운 짓인가!

부시가 그 연설에서 미국을 대량파괴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세 나라를 한꺼번에 묶어서 언급한 것은 미국의 정보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껄인 서툰 연설기법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그 세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야 정확한 것이다.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더 가공할 위협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술이라는 사실쯤은 부시 자신도 알고 있을 터이다. 선군사상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지니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신흥군사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만일 가소로운 공갈과 협박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시 정권의 오산이다. 부시 정권이 조 · 미 대결을 계속 추구하려 해서 결국 얻을 것이라고는 정치적 패배와 수모밖에 아무 것도 없다.

부시 정권은 맥빠진 공갈연설로 미국 인민을 속이려 할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결정책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조 · 미 공동성명에 기초한 조 · 미 정치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올해 2002년에 악의 제국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2002년 1월 30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 * *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어둡던 이 나라의 강토위에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대행운의 명절이며 자주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역사적인 대경사의 날이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역사의 어느 위인도 견줄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와 비범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주체의 기치높이 20세기를 이끌어오시며 시대의 연대기위에 영원불후의 위훈탑을 쌓아오신 찬란한 태양의 역사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광복의 은인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특히 주체혁명위업의 영도계승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신 업적은 조국과 민족, 시대앞에 쌓아올리신 역사의 대공적이라고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회의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가 분열된 첫시기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바쳐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해주시고 통일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계속하여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동지의 탄신절을 경축하게 되는 우리 민족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특출한 영도실력, 고매한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결한 충정을 기울이시어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하셨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시고 영원히 빛내어가고 계시는데 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절세위인의 찬란한 혁명실록을 수놓아가시며 새 세기의 진군을 현명하게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활동노정을 돌이켜보면서 장군님께서 세계정치사에서 처음보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의 발광적인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었으며 주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민족공동의 조국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신 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회의에서는 오늘 이북의 국제적 권위가 하늘에 닿고 이북민중이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의 구호 드높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역사와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태양복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무상의 특전이고 최대의 행운이라고 격조높이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온 세계가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과 우리 민족의 미래는 찬란히 기약되어 있다고 하면서 올해에 뜻깊은 태양절과 2월 명절을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중대한 계기로,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대경사로 빛내어나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이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데 관하여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기념준비위원회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절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들과 위원들을 선출하였다.

회의에서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올해 태양절과 2월의 명절을 민족최대의 대명절로 뜻깊게 기념하며 경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1. 태양절과 2월의 대명절을 맞으며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층 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결의를 담은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의 편지와 축하문을 삼가 올린다.
2. 태양절과 2월의 대명절을 민족최대, 인류공동의 명절로 가장 성대히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90돌 기념월간으로 하고 2월 1일부터 28일까지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탄생절 경축월간으로 한다.
3. 기념 및 경축월간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기념준비위원회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절경축준비위원회, 한민전 각급 조직들, 산하 단체들에서 다양한 정치, 문화행사들을 조직진행한다.
4. ≪구국의 소리≫방송, ≪구국전선 인터넷≫을 비롯한 한민전의 모든 선전물들을 기념 및 경축특집으로 발행한다.
5. 한민전대표부들에서는 현지실상에 맞게 다양한 정치, 문화행사들을 독자적으로 조직, 진행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1월 30일
서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당면투쟁구호

부시가 오면 전쟁 터진다. 호전광부시의 방한을 저지시키자!
동족불화, 동족대결의 씨뿌리는 부시의 행각 절대반대!
미국은 대북강경압살정책 즉각 그만두라!
민족공멸 자초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 결사배격하자!
세계제패 겨냥한 부시의 반테러전쟁확대 반대한다!
군수독점재벌 배불리고 겨레 죽이는 미국의 무기강매책동 박살내자!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 방해말라!
미국은 내정간섭에 손을 떼라!
미국은 양민학살진상규명하고 사죄보상하라!
강점자 약탈자 주한미군은 물러가라!
양키와 공조말고 민족공조 실현하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1월 31일
서울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국민들이여!

미국대통령 부시가 이북에 대한 침략적인 망언을 거듭 늘어놓고 있다.

부시는 얼마전 미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느니 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느니하며 위험천만한 폭언을 쏟아놓았다.

이것이야말로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이북을 모해압살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망언이며 한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전쟁을 유발하려는 작태가 아닐수 없다.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공갈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위협공갈이며 이북에 대한 침략과 공격은 곧 우리 이남민중에 대한 침략이고 공격이다. 따라서 이북에 대한 침략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반도전체의 평화에 대한 파괴로 된다.

이 땅의 각계 국민은 부시의 오만한 악담에 치솟는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저주할 미국때문에 반세기이상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해오고 있다.

이 행성에 오늘 우리 국민과 같이 60년 가까이 미국의 속지에서 치욕을 당하는 예속민족, 재난을 겪고 있는 분열민족은 없다.

미국의 식민지속박과 분단국의 설움을 안고 몸부림치던 우리 국민이기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던 그때 얼마나 격정에 목메어 천하가 동하도록 자주통일만세를 외쳤던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성취할 것을 확약한 6월의 선언은 우리 겨레의 드팀없는 자주통일의지의 포고였고 분출이였다.

그런데 부시정권의 출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도상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한반도에는 전화의 위험이 엄습해왔다.

대북강경정책을 표방하는 부시의 거듭되는 호전적 망언으로 6월선언과 더불어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은 다시 단절의 아픔으로 되보해갔다.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되었으며 이산가족들의 상봉마저 암초에 부딪쳤다.

이 격분할 사태앞에서 온 국민은 미국의 횡포에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반미투쟁의 발걸음을 드높여왔다.

그런데 부시가 이번에 또다시 대북선전포고와도 같은 침략적 폭언을 재연하였으니 우리 민중이 어찌 앉아 듣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이 선전포고는 곧 같은 핏줄을 이은 우리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침략도발이다. 더욱이 부시의 망발이 머지않아 있게될 그의 서울행각을 앞두고 발설되였다는데 전국민이 지목하지 않을수 없다.

부시의 서울행각이 분명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호전광의 전쟁행각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국대통령 부시의 서울행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발이고 우리 국민의 자주통일의지에 대한 유린이며 민족의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고 전제한다.

전국민들이여!

부시의 서울행각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적 요청이다.

긴박한 현정세는 우리의 전국민이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용약 분기해 반부시반미투쟁에 견결히 나설 것을 바라고 있다.

부시의 서울행각은 곧 민족공멸의 북침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

우리 국민앞에 평화냐 전쟁이냐하는 엄중한 형국이 닥쳐온 이 시각,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방관은 죽음이고 주저는 파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자주국민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거족적인 반부시 반미항전에 총분기하자!

침략전쟁의 불길을 안고 기어드는 부시의 범죄적인 전쟁행각을 결사반대 배격하고 그에 준엄한 철퇴를 내리자!

6.15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부시의 서울행각을 결단코 저지시키자!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은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반미반부시투쟁과 밀착시켜 벌여나가자!

강점자 약탈자 살인자인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자!

반미반부시투쟁에서의 승패여부는 전국민의 일치단결에 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기업인, 종교인 등 전체 국민들은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인 반미반부시항전으로 민족자주를 성취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자!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전국민이 애국애족과 평화통일의 염원을 반영한 우리의 호소에 전동포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2월 3일
서울

민족최대명절 2월 16일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청년주체주의자동지들에게 보내는 통보(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46호)

올해 주체 91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을 겹으로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2월 16일은 온 민족, 인류가 숭앙하는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만고절세의 빨찌산장군의 아들로 태어나신 민족최대, 인류최대의 명절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계시는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며 조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신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선대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과 도덕의리를 체현하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선군정치와 원대한 통일방략으로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시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조국은 통일될 것이며 21세기는 통일강성대국의 세기로 빛날 것을 체험으로, 심장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애국민중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루빨리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한편 역사의 그날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1.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2.16기념월간≫으로 성대히 기념할 것이다.

2.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주체 91년 2월 16일을 맞이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글≫과 ≪주체 91년 청년주체주의대오의 10대 맹약≫을 발표할 것이다.

3.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이번 기념월간 중 실정에 맞게 노작연구회, 기념강연회, 총화모임, 축하연회 등을 조직할 것이며 모든 모임에서 불멸의 혁명 송가, 송시를 감상, 낭독할 것이다.

4.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이번 기념월간 중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인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혁명과 건설에게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등을 연구, 토론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약전인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을 학습할 것이다.

5.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올해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를 ≪백두기간≫으로 선포하고 그 기간중에 새형의 피디에프일간지 ≪통일아리랑≫을 발간할 것이며 기관지 ≪통일여명≫ 14호를 ≪장군님 탄신60돌 기념특간호≫로 발간할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편집국 6.15주간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주체 91(2002)년 2월 1일
서울

≪통일아리랑≫을 창간하며

창간사(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48호)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이 겹으로 되는 참으로 뜻깊은 역사적인 해이다.

21세기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모든 조국통일방침들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살려나가는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일관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살려나가는 원칙에 의거하여 올해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를 ≪아리랑축전≫기간으로 선포하시였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이번에 새롭게 발간하는 피디에프일간지의 제호를 ≪통일아리랑≫으로 선정하였다.

≪통일아리랑≫은 주체형의 피디에프일간지이다.

≪통일아리랑≫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며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서 비약적 국면을 창출하는데 기본임무가 있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이야말로 통일혁명승리를 앞당기는 최대비결이며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통일아리랑≫은 새 형의 피디에프일간지로서 기존의 피디에프신문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통일아리랑≫은 정치사상적 내용에서나 철저하게 인터넷상의 피디에프신문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나 뚜렷이 구별된다.

≪통일아리랑≫은 ≪6.15주간≫과 달리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발간되는 피디에프일간지이다. 90일은 위대한 주석님의 탄신 90돌을 상징한다.

≪통일아리랑≫은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선전집단들이 펼치는 협동작전과 배합작전의 결실이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앞으로 90일을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기본으로 하는 ≪백두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사상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통일아리랑≫은 위대성선전의 중심기둥으로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통일아리랑≫은 관성과 안일을 타파하며 진공적으로 전진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풍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오늘의 김혁, 김책동지, 엎어놓아도 매달아놓아도 장군님만세를 부르는 2000년대의 열혈투사가 될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체의 사상론과 혁명적 붓대중시정신이야말로 모든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는 장군님을 따르는 문필전사로서의 무한한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향후에도 변함없이 사상전선의 최선봉에 설 것이다.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이 계시는 한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21세기는 통일강성대국의 세기로 빛날 것이다. 우리는 올해 태양절을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대경사로, 온 민족과 인류공동의 최대축제로 빛내일 것이다.

≪통일아리랑≫ 편집위원회
주체 91(2002)년 2월 1일
서울

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 실무대표회담 기자회견



4일 오전 ≪통일을 염원하는 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실무대표회담(남측단장 조성우, 북측단장 허혁필) 결과를 발표했다.

준비위는 한양원(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낭독한 기자 회견문을 통해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대표 각 100명과 남측 참관인 250여 명의 참가 아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또한 ≪이번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은 올해 민간급 남북교류의 첫 장을 여는 행사이며, 정체기에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금강산 남북공동모임에서는 북의 아리랑축제와 남북 각 부문간 교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북 실무대표단은 합의서를 통해 ≪행사내용은 남북대표연설, 각 단체들 간의 상봉모임, 통일문화행사, 공동등산 등으로 하고 행사비용은 남과 북이 공동분담≫하기로 하고 ≪올해의 여러 계기들에 민족공동행사들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변진흥(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김종수(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신창균(통일연대 명예대표), 손장래(민화협 상임공동의장), 한양원, 조성우(민화협 집행위원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수언(민화협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2/04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기자 회견문

≪통일을염원하는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실무대표단(단장 : 조성우)은 1월

29일(화)부터 2월 2일(토)까지 평양을 방문,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실무대표단(단장 : 허혁필)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실무대표단은 북측 실무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2월 20일(수)부터 21일(목)까지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대표 각 100명과 남측 참관인 250여 명의 참가 아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

진하기 위한 2002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의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회 1일차인 20일 오전 10시에 남과 북의 공동사회로 남북 각 대표단 단장의 인사말을 포

함 각 3인의 대표가 연설하며, 연설의 말미에 ≪공동호소문≫ 형식으로 7천만 겨레의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대표 연설 후에는 행사장인 금강산 여관에서 공동연회를 개최하여 남과 북의 친선을 다지게

되며, 부문 단체별 상봉모임은 공동연회 후인 오후 2시부터 개최하게 된다.

부문별 단체모임은 남과 북의 종단 모임을 필두로 남북 민화협, 북 민화협과 통일연대의 모

임, 노동, 농민, 여성, 청년, 경제, 환경, 문예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남과 북에서 각각 5개의 팀이 출연하는 문화행사는 오후 5시부터 온정각의 교외공연장에서 진행하게 된다.

대회 2일차에는 오전 9시부터 금강산을 공동등반 하며 하산하는 11시 경에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은 올해 민간급 남북교류의 첫 장을 여는 행사이며, 정체기에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금강산 남북공동모임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관심을 모았던 북의 아리랑축제와 남북 각 부문간 교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2월 4일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민족공동모임 합의서

남과 북의 단체대표들은 올해에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의 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민간급 대화와 접촉을 활발히 벌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데 올해 통일운동의 기본을 두고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의 단체들은 연초부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대표 각각 100명과 남측 참관인 250여 명의 참가 아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한다. 행사내용은 남북대표연설, 각 단체들 간의 상봉모임, 통일문화행사, 공동등산 등으로 하고 행사비용은 남과 북이 공동분담한다.

3. 남과 북의 단체들은 한(조선)반도에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올해의 여러 계기들에 민족공동행사들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2002년 2월 1일 평양에서
통일을염원하는2002설맞이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실무대표단 단장 조성우
민족화해협의회 실무대표단 단장 허혁필

정부, 금강산 새해맞이행사 참가허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통일부, 법무부 등으로 관계부처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6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교류라는 점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허용키로 했다≫며 ≪하지만 한총련과 범민련 등 이적단체 소속 인사는 직함을 바꾸더라도 참가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행사가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푸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 장소가 금강산 지역이고 행사 준비위도 작년과는 달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8.15행사때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 새해맞이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북측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갖기로 하고 이 행사에는 남북 각각 100명의 대표단과 남측에서 참관단 2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5일 ≪새해맞이 남북행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번 행사가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시기와 겹친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행사에 대한 참가허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대학 2백여개 과 ≪금강산 모꼬지≫ 추진

대학생들이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에 적극 나설 움직임이다.

7일 전국대학 과반학생회 및 학회소모임 대표들은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진행될 ≪금강산관광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전국 과학생회장단 대표 10여명이 나와 전국 200개과 · 반학생회 금강산 모꼬지(MT)사업 추진을 발표, 정부의 ≪금강산 관광지원≫결정을 환영하고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지원을 ≪대학생≫까지 확대지원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은 ≪수익사업≫의 의미를 뛰어넘어 평화와 통일사업으로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다≫며 ≪북녘 땅을 직접 밟아보고 체험하는 것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들이 민족의 통일을 진지하게 사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학생들의 기자회견 후에는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 창립총회가 이어진다. ≪금강산 사랑 범국연대≫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선출, 2회 금강산평화마라톤 사업 등이 발표된다.



무엇을 노린 특수미사일부대인가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9일~30일

지금 이북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어서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미국이 있지도 않는 이북의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내외에서 항의와 규탄이 물끓듯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엔 ≪무엇을 노린 특수미사일부대인가≫ 이런 화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이 특수미사일부대라는 것을 창설했는데 미국은 이 부대창설목적이 있지도 않는 이북의 탄도미사일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국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강도적 논리입니다.

사회자 : 그렇죠. 사실 미사일위협으로 말한다면 이북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오고 있잖아요. 이건 세계가 다 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현규 : 그렇죠. 미국잡지 ≪뉴스 위크≫가 최근 발표한데 따르면 ≪지금 미국본토에는 세계 인류를 수십번 죽이고도 남을 약 2만개의 각종 핵 및 미사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미국의 이 핵 및 미사일들이 세계의 모든 지역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한국에 1천여개의 핵무기와 미사일, 핵적재용 ≪에프16≫전투폭격기를 배비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땅 도처에 핵저장고들을 신설하고 핵탄저장과 장비를 맡은 부대까지 끌어들여 임의의 순간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만반의 준비까지 갖췄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이 땅에서 국군과 함께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거기에 핵항공모함들과 핵공격용 군사장비들, 핵배낭을 휴대한 특수부대들까지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이같은 책동으로 오늘 이 땅은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됐고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이 땅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 있잖아요.

김현규 : 네, 옳습니다. 미국은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미사일들의 주요장비들에 대한 성능개량작업을 벌이는 한편 동해에 미사일이 장비된 이지스함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장비인 요격레이다를 새로이 땅에 끌어들이려고 할뿐 아니라 국군에 300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다연장전술지대지미사일 111기를 2004년까지 넘겨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반도에서 미사일위협이 이북에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회자 : 그러면 미국이 왜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교활하고 음흉한 속셈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미국이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한 것은 한국을 저들의 세계제패를 위해 실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미국은 얼마전 제손으로 서명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헌신짝처럼 차던지고 세계가 반대배격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사일방어체제를 세계의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한반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아시아대륙의 관문이며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침략무력과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살인무기들을 끌어들이고 한국을 저들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참가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결국 미국이 새로운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한 건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코에 걸고 이북침공을 위한 전력을 더욱 증강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김현규 : 최근 미국신문 ≪뉴욕 타임즈≫가 ≪미사일방어체계가 이름처럼 방어용이 아니라 사실은 미사일공격의 자유를 위한 공개적인 개념위에서 출발한 무기체제≫ 이렇게 폭로한 것만 봐도 잘알수 있는데요. 미국이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한 것도 한국을 저들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끌어들여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고 핵전쟁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데 있습니다.

사회자 : 제반 사실은 미국이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과 인류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덮씌우려고 책동하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국민들은 이 땅을 미사일방어체제의 시험장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며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미국이 제아무리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통일을 방해해도 우리 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야 말겁니다.

BBC ≪미8군이 피난민 학살 명령≫

영국 BBC방송은 1일 밤 9시(현지시간)부터 50분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전원 사살(KILL굠MALL)≫을 통해 지난 50년 7월26일 한국내 미군 최고사령부였던 미8군이 모든 한국 민간인에 대한 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미8군이 ≪모든 피난민의 전선통과를 불허한다.모든 한국인의 이동을즉각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바로 이날 첫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방송은 노근리에서 400여명의 피난민이 일부는 다리 위 철길에서, 다른 일부는 미군기의 기총소사를 받고 사망했으며 그후 3일간 철교 밑에서 학살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생존자 양해찬씨는 ≪다리 밑은 모래와 자갈이었으며 사람들은 맨손으로 숨을 구멍을 팠다.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바리케이드처럼 쌓아올려 총알받이로 삼고 그뒤에 숨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아이는 엄마가 죽자 계속 울었는데 이 아이가 우는 곳을 향해 사격이 가해져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자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개울물에 넣어 질식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생존자들의 주장은 당시 노근리에서 피난민에게 사격을 가했던 미육군제7기병연대 참전용사 35명의 증언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방송은 말했다.

참전용사 조 잭먼씨는 ≪한 장교가 미친사람처럼 ≪모든 것을 향해 발포, 전원사살하라≫고 외쳤다. 나는 그들이 군인이었는지 몰랐다. 어린이들이 있었다. 그러나나이가 8살이든 80세든, 맹인이든 불구자든 미친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다. 모두에게사격했다≫고 말했다.

역시 제7기병연대의 참전용사 조지 얼리씨는 노근리 사건 하루 전 중대장이 자신에게 피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듣고 ≪민간인들에게 어떻게 사격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자 권총을 뽑아 자신의 머리에 겨눈채 ≪전투중 명령불복종으로 사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AP통신의 보도 후 미 문서보관소에서 피난민 사살명령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들이 더많이 발견됐으며 이 문서들은 노근리 사건 이후에도 미국 지휘관들간에 피난민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확산됐음을 보여준다고 방송은 말했다.

지난 50년 8월 낙동강을 건너는 피난민에 대한 사살명령이 있었고 같은 달 미제 1기병사단(제7기병연대의 상급부대) 사단장 게이 장군은 포병대에 민간인들을 조준하라는 명령을 실제로 내렸다고 방송은 말했다.

또 51년 1월에도 미8군은 한국내 모든 부대에 피난민은 폭격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화력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방송은 말했다.

이와 함께 노근리 이외에 새로운 민간인 학살사건들도 밝혀졌다고 방송은 말하고 개전 6주 후인 지난 50년 8월10일 마산 근처 고간리에서 이씨 문중사람 82명이 문중사당으로 피신했다가 24시간만에 미 제25보병사단에 의해 전원 피살됐으며 이중 29명이 10세 이하의 어린이였다고 전했다.

또 50년 9월1일 포항 인근의 해안에서는 미 해군함정이 40분간 1천여명의 피난민을 향해 발포, 400여명이 살해됐고 50년 7월과 8월중 수십개의 마을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미군기의 저공 기총소사가 반복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방송은 말했다.

방송은 한국 국방부는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살사건을 모두 61건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은 지난해 이중 1건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노근리 사건의 제7기병연대와 같이 제1기병사단의 예하부대인 제8기병연대는 사단본부로부터 ≪모든 피난민의 전선통과를 금지한다. 전선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포하라. 여자와 어린이의 경우는 신중히 판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방송은 말했다.

공군이 육군의 요청으로 민간인에게 기총소사를 가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들도 발견됐다고 방송은 말했다.

당시 터너 로저스 공군대령은 노근리 사건 전날 작성한 메모에서 ≪육군은 아군진지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난민 행렬에 기총소사를 요청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군의 요청에 따랐다≫고 밝혔다.

방송은 미 국방부가 노근리 사건당시 사살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전용사들의 상당수가 발포명령을 기억하고 있고 이 명령이 들어있어야 할 제7기병연대의 통신기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이 기록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방송은 말했다.

노근리사건을 취재했던 AP통신의 찰스 핸리 기자는 ≪국방부 보고서는 노근리에서 명령이 없었다고 선언했으나 이를 증명할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BBC는 한국정부가 전쟁중 미군의 민간인 사살사건을 61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1건만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이와 함께 노근리 사건 당시 미 육군이 미 공군에 공중 지원사격을 요청했으며 미 공군은 육군의 요청에 따라 기총소사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군 지휘관들이 피난민들을 적으로 간주해 사격하라는 내용의 기록은 14건의 문서에 나타나 있다고 방송은 말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 참전용사는 당시 자신이 사격할 때 어린 여자아이가 달려가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곤 한다고 울먹였다.

BBC2의 타임워치 프로그램을 통해 오후 9시부터 9시50분까지 방영된 이 도큐멘터리는 런던의 옥토버필름스가 제작한 것으로 톰 로버츠가 감독하고 제레미 윌리엄스가 프로듀서를 맡았다.

(런던/연합뉴스)

≪민간인 학살, 얘기하면 끝이 없어≫

≪민간인 학살 범국민위원회≫ 긴급기자회견 가져



영국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다 죽여버려≫(Kill궲m All)의 방영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한 유족, 사회단체들의 진상규명과 사죄배상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4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민간인학살 범국민위원회) 주최로 ≪BBC ≪다 죽여버려≫ 방영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근리 사건 이후 최근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방영으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탓인지 많은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도 높았다.

먼저 임현영 민간인 학살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복권이 안된다면, 명분없는 희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또, 임현영 공동대표는 ≪미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는 과거의 역사청산 문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문제≫라며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전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며 ≪이번 영국 BBC 방송에서 다룬 마산 곡안리의 경우는 그 자체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이와 비슷한 많은 사례들이 이미 증언과 발굴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춘 교수는 ≪새로운 사실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번 영국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방영은 공적 성격을 가진 매체와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는 유럽의 양심세력이 보도했다는 사실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산 곡안리 유족 대책위원장 이만순 씨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50년 8월 10일 일출시간부터 일몰 때까지 미군 비행기의 집중사격과 바닷가에서 함포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뒤, ≪집안의 재실에 숨어있던 84명이 죽고 일가족 모두가 죽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만순 씨는 ≪미군의 학살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다≫며 ≪정부가 앞장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눈물을 글썽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민간인 학살 범국민위원회는 채희진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한 2차 성명서를 통해 ≪BBC의 다큐멘터리는 노근리에서 발포명령이 없었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다≫며 당시 학살 명령이 구체적이고도 폭넓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한 ≪미국이 학살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이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죄배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간인 학살 범국민위원회는 앞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인권위 제소 ▲≪동아시아 평화인권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국제연대 구축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04

민간인 학살증명 미군 기밀문서 공개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에 미군 오폭



미군의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을 증명하는 미 국방부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는 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계획적 학살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 국방부 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유족회는 이 문서가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표기된 민간인 학살 관련 최초의 문서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그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군 문서에 따르면 1951년 1월 19일 미육군이 공중폭격을 요청한 좌표와는 다른 좌표인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에 오폭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에는 사망자(34명)와 중상자(42명), 경상자(30명) 등의 인명피해를 남녀 구분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가옥 등의 재산피해(80채)도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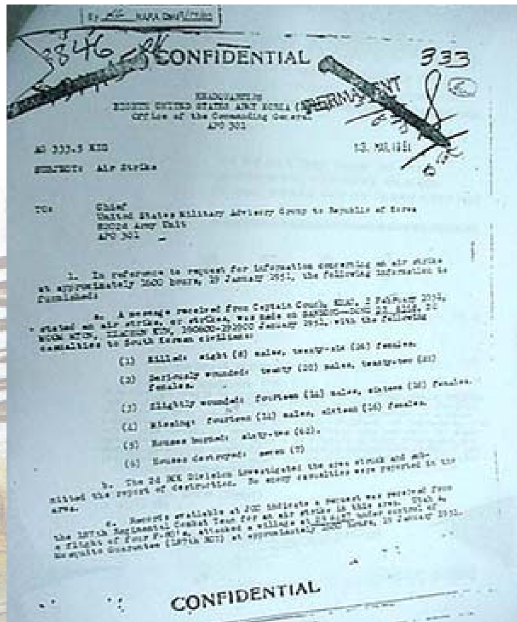
폭격 이후 한국군 2사단이 해당 지역을 조사했으나 사망자 중 적(북한군)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폭격 전 해당 지역 주민을 소개하였으므로 정당한 폭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예천보문면유족회 대표 안동규 씨는 ≪당시 마을 주민들은 타작과 목화씨를 고르는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미군의 소개는 없었다≫며, ≪산 너머 마을인 경북 안동군 북후면 신전리에 주둔한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그 지역 주민들은 소개했다≫ 고 증언했다. 이어 안씨는 ≪폭격요청 지역은 신전리였으나 엉뚱하게 산성리를 폭격하여 50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88채의 가옥이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00년 1월에 실시된 경상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증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승 씨는 전남 영광 불갑산에서 한국군에 학살된 민간인들의 암매장 지역을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수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암매장 지역과 유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조현기 유족회 집행위원장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학살장소인 대전 산내동 등이 재개발되어 원형 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학살지역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CONFIDENTIAL

SUBJECT: Air Strike

TO: Chief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Republic of Korea

CONFIDENTIAL

권오중 기자 okiking50@hanmail.net

노근리 사건 UN인권위 상정 본격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와 노근리 양민학살주민대책위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근리 사건 해결을 위해 세계교회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오는 3월말에 개최될 유엔 인권위원회에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안건 상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국 정부가 노근리 사건 진상 조사시 이를 축소 · 은폐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진심어린 사과와, 한미 양국정부를 향해 노근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KNCC와 노근리 주민대책위는 영국 BBC가 2월 1일 방영한 ≪모두를 죽여라(Kill궲m All)≫을 보며 한미 정부가 2001년 1월 발표했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진상보고≫에서 학살은 인정했으나 의도적인 학살이 아닌 일부병사의 우발적 사고였다는 발표내용에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BBC에서 방송에서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노근리 주민을 향해 총을 쏘았던 미 제7기병연대 참전미군 30여명의 증언이 일치할 뿐 아니라,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문서가 14건이나 발굴되었음≫을 밝혔다.

KNCC 김동완 총무(노근리 대책위 상임고문)는 ≪51년 발효된 UN인권위법에 따르면 ≪학살 범죄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이 있는데 노근리 양민학살은 명백히 이 조약에 위배됨≫을 전하며 미국 정부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근리 주민대책위 정구도 대변인은 ≪KNCC는 이전에도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신대 문제를 UN인권위에 상정, 정신대 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성공 사례가 있다≫며 KNCC와의 협력을 통한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한편, 한 · 미 정부와 노근리 대책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노근리 주민대책위가 배제되었음이 밝혀졌다.

강원대학교 예술대학의 이운식 교수는 추모비 공모에 참가했다가 노근리 대책위가 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고 노근리 대책위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근리 대책위는 이교수의 의문제기 후에야 자신들이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배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구도 대변인은 ≪미국은 노근리 사건에 대한 사죄를 위한 추모비 건립사업에서마저도 노근리 주민들을 유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세옥 기자 kso@ngotimes.net
시민의 신문

한나라당총재 이회창,
통일 이후 주한미군주둔 망발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8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회창은 1월 26일 뉴욕에서 아시아 사회협회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통일된 이후에도 동북아안정과 세력 균형자의 역할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계속 필요하다느니 휴전선에 배치된 인민군대를 비무장지대에서 후퇴, 배치시키고 전략무기를 감축해야한다느니 뭐니하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지체없이 물러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의 절절한 목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을 반세기이상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은 우리 민중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새전쟁도발의 위험한 존재, 통일의 기본장애물입니다. 미제침략군이 철수했더라면 우리 민중이 민족적 **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의 정세도 긴장되지 않으며 자주적 평화통일도 이룩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미국상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니 이런 반민족반통일 친미사대매국노를 어찌 그대로 둘수 있겠습니까.

미군에 대한 태도는 곧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고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기준으로 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회창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오직 분열과 전쟁만을 추구하고 있는 반통일분자, 전쟁광신자라는 걸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회창이 인민군대를 비무장지대에서 후퇴, 배치시키고 전략무기를 감축해야한다고 망발을 늘어놓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써 북을 완전 무장해제시켜놓고 북을 손쉽게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군당국은 휴전선부근에 핵무기들을 비롯한 신형무기들을 배비해놓고 북을 임의의 시각에 공격하기 위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북침공격전야의 위협천만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미국과 군당국이 휴전선부근에 배비한 방대한 전략무기들을 감축해야한다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둑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리어 주인을 ***** 당반위에 올려놓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북을 걸고들었으니 이회창과 같은 옳고 그른 것도 가려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회창이 남이 뒤에서 욕하는줄도 모르고 우쭐대면서 미국에 가서 한 짓이란 북미관계 개선에 빗장을 지르고 남북대결을 조장시키며 통일을 요원하게 만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회일각에서 이회창의 이번 방미는 철두철미 침략과 매국, 분열을 위한 것이라며 그를 정계에서 즉시 제거해버려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습니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은 응어리를 뽑아내야 상처가 아물듯이 이회창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 친미사대매국노를 민족의 족보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반미투쟁과 결부시켜 보다더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애비에 그 아들

김철호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9일~30일

반통일사대매국역적 이회창에 대한 민중의 증오와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요. 인천서 사시는 김철호씨의 글을 이철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어린시기부터 습관되고 버릇된 것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때의 악습을 늙어 죽을때까지 고칠수 없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경력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일제 검찰기관의 서기노릇을 하면서 특등 친일주구로 활약한 애비로부터 친일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이회창은 일본인이 아닌 일본인이였다. 그는 어릴때부터 옷과 신발을 우리 것이 아닌 일본제를 애용했고 말도 일본말을 더 많이 배우고 사용했다.

그가 얼마나 일본숭배사상이 강했는가 하는 것은 애비와 함께 기모노를 입고 일본천황만세를 열창하며 사진까지 찍은 것을 보아도 잘알수 있다. 이처럼 이회창은 어릴적부터 외세의존과 숭배로 길들여졌고 그것을 고유한 생존방식으로 체질화했다.

대세에 따라 상전을 바꾸는 것은 사대매국에 환장한 자들의 속성이다. 이회창과 그의 애비도 바로 그런 추악한 인간들이다. 8.15광복후 미군정청의 거두였던 아놀드 미육군소장에게 대미충성을 맹약한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로 임명됐다. 이때부터 그는 친일분자에서 친미분자로 변신했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이회창도 달리될수 없었다. 서울대 법대 대학시기 수시로 강의에 빠지고 돈암동 동도극장과 다방에 출입하면서 미국영화와 미국음악을 즐겨 감상한 것은 그가 미국을 알고 미국식 생활양식을 몸에 배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회창의 법관시절은 대미충성의 극치를 이루었다.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적으로 되었고 처형대상으로 되었다. 진보적 언론인이였던 ≪민족일보≫사장 조용수씨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민중이 이회창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고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투옥됐던 김현장, 문부식씨 등 반미선각자들이 사형판결을 받았다. 이회창이 얼마나 많은 민주애국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형을 비롯한 극형에 처했으면 그 자신까지도 그런 판결이 무수히 많아 미처 다 기억할수 없다고 실토했겠는가.

사대매국과 독립운동탄압에 앞장섰던 애비의 체질을 그대로 빼어닮은 그의 행적은 민족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애국민중에 대한 학살로 얼룩져 있다. 이러한 이회창이 오늘 친미사대매국행위에 더욱 집착하면서 대권까지 노리고 있고 공단방문이니 환자병문안이니 현장답사니 하고 분주탕을 치우며 돌아치며 오그랑수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강력히 요구하는 국가보안법철폐를 결사반대하고 최하층민생보장을 위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가로막으며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요구도 집단이기주의로 모독하면서 속에 없는 민생구호를 곧잘 떠들고 있다.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통일의 암적 존재인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철수불가론, 통일이후에도 영구주둔을 애걸하며 친미주구로써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환심을 사서 대권욕을 이루어보려는 것이 그의 속셈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그가 민생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자기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자들치고 국민을 해치지 않은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회창과 같이 대를 이어가며 사대매국에 명줄을 걸고 있는 자를 그대로 두면 우리 민족은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당할수 있다.

각계 민중은 새해에도 민족의 적인 이회창을 정치권에서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대를 물려가며 매국역적질을 일삼는 이회창족속은 이미 벌써 민족의 명부에서 지워버렸어야 하는거죠.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매국역적이 감히 대권을 들먹이고 있는데 우리 민중은 절대로 이런 자가 권좌에 앉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회창은 반통일광

신진섭 / 구국전선 제467호 주체91(2002)년 2월 1일

개꼬리 3년가도 황모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바로 이회창이 그러하다.

한해가 또 지나갔지만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통일에 제동을 거는 속비뚤어진 악담뿐이다.

지난 1월 17일 이른바 ≪연두기자회견≫이라는 것을 벌여놓은 이회창은 또다시 6.15공동선언이행에 대해 걸고 들면서 이북에 대해 그 무슨 ≪전략적 상호주의≫니 ,≪국민적 합의≫니, ≪검증≫이니 하는 얼빠진 소리를 줴쳐댔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미국을 행각하여 이 얼빠진 소리를 뇌까리는 추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회창의 넋두리야말로 동서남북도 분간못하는 정신병자의 발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호주의≫는 국가간, 다른 민족간의 관계에서 쓰이는 용어이지 한민족, 한집안관계에서 쓰는 말이 아니다. 남북으로 말하면 대대손손 백두산자락에 태를 묻고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오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이따위 망발을 하니 그는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인 북을 타민족, 타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정신병자임이 분명하다. 동족의식이란 전혀 없고 민족의 피란 한 방울도 없는 이회창이야 말로 이 땅에 두어서는 안될 반통일광이며 반북대결광신자임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회창은 7천만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담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에 대해 언제한번 속통바른 소리를 한적이 없다. 그는 입만 벌리면 공동선언에 정면배치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기반의 통일≫이니, ≪6.15남북공동선언이 주한미군철수와 외세배격주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느니 하는 매국배족적이며 친미사대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가 지지환영하는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밝힌 조국통일이정표이다. 그래서 우리 민중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통일에로 가는 6.15공동선언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섰다. 이런 시대흐름과 민의에 도전하여 안팎으로 돌아치며 ≪국민적 합의≫니, ≪검증≫이니 ≪상호주의≫니 하며 공동선언이행을 기를 쓰고 가로 막아 나서는 것은 조상대대로 민족과는 등을 지고 외세에 빌붙어 살아온 사대매국적 근성이 골수에 찬 미국의 특등광신, 이회창의 본성이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추악한 반통일광, 친미주구이기에 이산가족상봉을 파탄시킨 홍순영에게 ≪참잘했다≫고 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이 저들의 정책과 같다고까지 떠들며 ≪주적≫론을 제창했던 것이다.

제반 사실은 동족을 죽이려 하고 영구분단을 꾀하는 미국상전에게 잘보여 전과를 차지해 보려는 추악한 이회창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와 민주, 통일도 실현할 수 없음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회창과 같은 친미매국노, 반통일광이 이 땅에 살아숨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중의 수치이다. 개는 짖어도 종착점을 향해 달리는 통일열차는 멈춰 세울 수 없다. 각계민중은 통일의 장애물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6.15공동선언실현의 대로를 활짝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리회창이 자기의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 한 상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평통서기국대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대변인은 남조선의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미국에 가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망발을 줴친것과 관련하여 1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얼마전 미국을 찾아간 리회창이 상전들앞에서 ≪북은 변한것이 없다≫느니, 그 누구의 ≪핵개발에 대비≫해야 한다느니, ≪통일후에도 미군의 남조선주둔이 필요≫하다느니 하고 떠들다 못해 지어 자기가 ≪집권≫하면 우리에게 ≪비무장지대에서의 북의 병력후퇴배치, 재래식무기감축≫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망발까지 늘어 놓은데 대해 단죄하였다.

그는 리회창이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부쉬 행정부의 두목들과 만나 대북강경정책을 부추기는 망발을 토한 것은 누가 보아도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온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 아닐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리회창이야말로 더러운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외세에 아부하여 개질을 하는것

도 서슴지 않는 특등매국노라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으면 동족사이에 전쟁밖에 있을것이 없다.

우리는 리회창과 같은 사대매국적인 반통일분자가 자기의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 한 그와 상

종하지도 않을것이다.

리회창의 미국행각시 발언한 망언을 규탄

조선중앙통신 론평

남조선의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미국을 행각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망언을 꺼리낌없이 늘어 놓아 겨레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리회창은 6.15북남공동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에 대한 그 무슨 ≪검증≫을 운운하고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북과 남사이의 협력사업마저 시비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것은 겨레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쟁탈과 일신의 영달만을 노린 반통일, 사대매국행위이다. 리회창의 민족분렬주의자로서의 더러운 정체는 이번 미국행각의 정치적배경과 목적을 통하여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금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반테로전쟁≫을 계기로 기고만장하여 자주적으로 나가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부쉬의 남조선행각에 한발 앞서 상전을 찾아간 리회창이 우리에 대한 ≪검

증≫과 ≪상용무력축감≫에 대하여 떠들며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애걸한 것은 미강경보수세력의 환심을 얻어 다음기 정치권력을 차지해 보려는 식민지주구의 추악한 권력욕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것으로 된다. 이자야말로 더러운 정권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외세에 아부하여 개질을 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특등매국노이다.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으면 결국 동족사이의 전쟁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민족의 리익과 지향, 대세의 흐름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능력도 갖추지 못한 비인간적정치시정배인 리회창이 6.15북남공동선언을 한사코 반대해 나선것이다.

6.15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의 온 민족이 세계와 력사앞에 확약한 통일의 리정표이다.이를

반대한다는것은 민족의 생존자체를 전면부정하는것이나 다름없는 반역행위로 된다.

우리는 리회창과 같은 사대매국적인 반통일분자가 자기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한 그와 상종

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일보를 참해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4일~5일

조선일보의 반북반통일책동이 새해에 들어와서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어서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 있는 민족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인 김중배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참해한다≫, 이철씨 보내드립니다.

사회의 여론을 옳게 하려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정의를 선도하고 불의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언론의 자세이고 임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언론을 사회의 선구자, 목탁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는 언론의 본연의 자세와 사명에서 벗어나 진실을 왜곡, 오도하고 모략을 일삼고 있는 언론사도 있다. 그 대표적인 언론집단이 바로 우익보수세력을 대변해서 온갖 모략을 다하고 있는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의 작태를 보면 사회적 불안과 불신, 민족적 대결을 조성, 조장하는 어용나팔수, 민족반역의 집단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동족간에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악을 쓰는 것은 조선일보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조선일보가 취하고 있는 행태만봐도 이 반북매문지가 얼마나 극악한 반역의 집단인가를 잘 알수 있다.

6.15공동선언발표로 온 겨레의 통일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때 유독 조선일보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악담질로 지면을 메꾸었다.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온 겨레의 통일염원과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유일무이한 통일이정표이다. 조선일보는 남북공동선언이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공표되자마자 통일은 어느 한쪽의 체제와 동향에 따라 실현될수 없다고, 그 체제가 절충된 통일은 있을수 없다고 입 삐뚤어진 소리를 했다. 이것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을 성숙시켜 통일을 열어나가기로 한 공동선언에 전면 도전하고 부정해나선 행위이다. 조선일보는 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인 궤변을 그대로 반영해 공동선언에 대해 북에 굴복하고 이용당한 것이라고 떠들었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만

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공동선언발표후 오늘까지 반민족적, 반통일적 기사들로 지면을 메꾸는 망동을 일삼아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6.15공동선언에 역행해 남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고 비열한 모략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3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북을 헐뜯는 악담을 퍼부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북은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려하지 않고 자주와 외세배격 그리고 주체사상의 깃발만을 들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이 무기력하고 화석화됐다는 걸 말해준다고 떠들었다. 매문지로써 철두철미 예속과 매국, 파쇼와 분열을 찬미하고 자주독립과 민주통일을 반대해온 범죄행적으로 일관되어 온 조선일보로써는 자주와 주체의 진리에 대해 알리 만무하다. 북으로 말하면 자주정치로 세계의 격찬과 각광을 받고 있는 세계유일의 자주독립국인 것이다. 자주성, 주체성이란 털끝만치도 없고 오직 미국상전의 지휘봉에 따라 식민지통치만을 찬미해온 조선일보가 감히 북의 자주정치, 주체사상을 헐뜯으며 악담질을 하는 건 민족배반의 악행으로 마땅히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또한 북에 외세배격주장을 시비해나섰다. 창간후 80년여동안 일본과 미국상전의 발바닥을 핥으며 기생해 온 조선일보로써는 외세배격주장이 자기의 명줄을 끊는 비수로 여겨졌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9.11테러사건과 관련해 북이 반테러라는 새로운 국제질

서에 편승하지 않고 폐쇄의 울타리를 높이고 있다고 악담질을 했다. 9.11테러사건과 관련해 북이 모든 테러를 반대한다고 공언한 건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땅의 호전세력들처럼 테러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북의 동향을 운운하며 동족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미국의 강요대로 무고한 아프간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편승해 파병을 해야 옳은 처사라 할수 있겠는가. 외세배격은 우리 국민이 온갖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도 초미의 문제로 나서는 것이다. 북의 외세배격주장을 시비해 나선 것은 조선일보가 철저한 친미사대매국집단의 매문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의 주적론철회와 국가보안법철폐요구에 대해서 시비하면서 이것은 북이 6.15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떠들었는데 이것 또한 우익보수세력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과 짝짜궁을 하는 소리이다. 6.15공동선언과 주적론, 국가보안법이 양립될수 없다는 건 우리 민족을 넘어 세인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주적론과 국가보안법고수를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행위야말로 민족대단결과 나라의 통일에 역행하는 민족반역행위이다.

조선일보는 최근에 이른바 국경없는 ≪인권회의≫ 이름을 도용해 북의 강제수용소에서 신생아살해니 뭐니하고 떠들었다. 이것 역시 조선일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곳이 바로 북이라는 것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또 경탄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북에 강제수용소가 없다는 것 역시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벙어리 제마음속 생각을 한다고 인간존엄이란 조금도 보장되지 않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말세기적 현상만을 목격해온 조선일보는 그 어지러운 시각으로 이북의 현실을 오도해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왜 새해 벽두부터 입에 칼을 물고 악의에 차서 북을 비방중상하고 온갖 모략을 꾸며대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6.15공동선언이행에 빗장을 걸어보려는데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이행돼 남북간의 화해와 합력, 단합이 이룩되고 나라가 통일되면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대변지, 나라의 분열과 민족대결책동으로 연명해가는 반통일세력들의 어용나팔수, 반북모략지로써의 자기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게 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행위는 임종에 다다른 반공 매문지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부릴수록 임종의 시각이 더 빨리 돌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성업실현을 한사코 훼방해나서는 조선일보를 그대로 놔두면 온 겨레가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각계 민중은 이미 조선일보불매운동을 벌인지 오래다.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 조선일보는 머지않아 지난날의 더러운 행적을 안고 땅속깊이 매장되고 말 것이다.

≪조선일보를 참해한다≫, 이철씨 말씀 들으셨습니다. 조선일보가 대세를 거역하고 계속 반북반통일의 길로 나간다면 돌아올건 파멸의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아리랑대공연을 헐뜯는 ≪조선일보≫를 규탄

조선학생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는 남조선의 ≪조선일보≫가 우리의 ≪아리랑≫대공연을 악랄하게 헐뜯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1일에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평양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공연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민족뿐만아니라 온 세계가 이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면서 앞을 다투어 그 관람을 희망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때에 남조선의 ≪조선일보≫라는것이 감히 입에 담지못할 망발로 ≪아리랑≫대공연을 악랄하게 헐뜯고 있다.

얼마전 ≪조선일보≫는 우리의 ≪아리랑≫공연과 관련하여 그 무슨 ≪관광상품개발≫이니 ≪파시즘≫이니 하는 따위의 갖은 악담을 다 퍼부었다. 이것은 공연을 성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학생들과 예술인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이 공연이 가지는 민족사적의의를 악랄하게 외곡하고 부정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학생들과 모든 학부형들을 비롯한 인민들은 ≪조선일보≫의 이러한 악질

적인 범죄행위에 끓어 오르는 격분을 표시하면서 단호히 규탄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사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내외가 일치하게 인정하는바와 같이 이미 우리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완벽한 기교로 하여 인류문화의 보물로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결력이 만방에 과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우리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하여 악질적인 비방중상을 일삼으면서 훼방질을 하고 있는것은 그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를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내놓을뿐이다.

≪조선일보≫는 저들이 저지른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에 대해 당장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는데 앞장서 온 남조선의 ≪조선일보≫가 이번에 우리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까지 헐뜯고 중상해 나선 조건에서 그자들을 ≪반통일반역집단≫으로 등록하고 기어이 사죄를 받아 내고야 말것이며 그 명줄이 끊어 지고 존재를 마칠 때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강력히 벌려 나갈 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 기회에 우리는 남조선의 청소년학생들과 학부형들을 비롯한 각계층 광범한 인민들이 반통일반역집단인 ≪조선일보≫를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되게 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8일~29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이행을 제대로 해나갈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국보법철폐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려는 것이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의 한결같은 의지라 하겠습니다.

새해 정초부터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국보법철폐투쟁의 불길, 그 불길로 국보법의 마지막 잔해까지 깡그리 불태워버리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는 자못 크다 하겠죠.

그럼 그에 대해서 김현규씨 말씀드리죠.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되게 하자≫.

지금 새해를 맞이한 우리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올해에 기어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야 말 굳은 의지를 가다듬으며 정초부터 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전남대학교, 수원지역청년학생연대, 서총련, 남총련을 비롯한 한총련산하 대학 주요 총학생회들과 학생연대회의 소속 20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국가보안법철폐투쟁으로 새해 투쟁의 포문을 열었고 또 보안법철폐를 위한 천주교연대, 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행동연대, 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 재야시민단체들이 학생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나서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이 새해 정초부터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과감히 나서고 있는 것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통일의 활로를 개척하려는 숭고한 통일애국의 발현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날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열망에 칼질을 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는 희세의 반통일악법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선봉장인 한총련을 탄압의 기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수많은 애국청년학생들을 철창속으로 끌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청춘들이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는 죄아닌 죄로 국가보안법의 희생물이 되어 쓰러져 갔습니까.

제9기 남총련의장 최종은씨, 아주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최석진씨,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이미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되었고 새해들어 지난 1월 3일에는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인 김도형 남총련의장 권한대행이 보안법의 족쇄에 묶여 철창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6.15공동선언을 받들고 민족자주통일성업에 나섰던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학생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도 나아가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도 생각할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만청년학생들은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우선 한총련을 비롯한 학생운동단체들이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제기하자≫라는 구호를 치켜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선봉에 서서 과감히 싸워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국보법철폐투쟁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보법철폐투쟁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은 서로 별개의 투쟁이 아닙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화해와 협력, 단합에로 향한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고 우리 민중의 민족자주통일운동에 칼질을 한 것이 바로 국보법입니다. 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고 그 사이에 남북사이의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됐고 또 이 과정에 6.15공동선언정신이 구현된 수많은 합의들도 있었지만 국보법의 존재로 인해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될수 없었습니다. 이건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을 성공적으로 실현할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보법철폐투쟁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은 상호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같이 벌여나가야할 공동의 투쟁으로 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이 투쟁을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 구속학우석방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애국학생들을 체포구속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와 구속학우석방투쟁을 국보법철폐투쟁의 궤도선상에서 벌여나가야합니다. 이와 함께 국보법어기기운동, 국보법반대여론조사활동, 국보법철폐를 요구하는 전화제보받기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국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보법철폐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이 투쟁을 국보법철폐를 반대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보수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해서 벌여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국보법이 철폐되면 외세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극우반통일보수세력에게 있어서 큰 타격으로 됩니다. 하기에 저들의 생존기반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보수세력은 어떻게나 국가보안법철폐를 가로막아보려고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극우반통일세력들의 검은 속셈을 똑바로 보고 놈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국보법폐지의 시기상조론을 떠드는 반통일보수세력의 궤변에 강타를 안겨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반통일역적들을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오물장에 기어이 매장해야 할겁니다.

백만청년학생들은 통일애국의 한마음으로 과감히 분기해나섬으로써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되게 하는데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할겁니다.

김도형학우를 즉시 석방하라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8일~29일

그럼 이번엔 한양대 서한영씨의 글 이어드립니다. ≪김도형학우를 즉시 석방하라≫.

새해 정초부터 당국의 학생운동탄압책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2년 1월 3일 새해 벽두에 보안수사대는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인 김도형남총련의장권한대행을 보안법에 걸어 강제연행하는 파쇼폭거를 자행했다. 당국의 이같은 행위는 지금 우리 남총련과 백만학우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도형학우는 전남대학교 학우들에 의해 당선된 부총학생회장으로 그리고 남총련의장권한대행으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헌신해온 열혈애국투사이다. 그런데 보안수사대는 그가 6.15공동선언정신을 받들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자고 외친 것을 트집잡아 철창속으로 끌어간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틀고나가야할 21세기 통일이정표이며 그 이행에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 하기에 오늘 7천만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도형학우는 민족자주통일에로 향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통일의 선봉장이 되고자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으로써 전남대학우들을 이끌었고 또 남총련 제10기 의장인 최종은학우가 파쇼당국에 체포되자 남총련의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어 조직을 이끌어나갔다.

남총련을 비롯한 한총련학생들의 투쟁을 눈에든 가시처럼 여기던 당국은 이번에 보안수사대를 내몰아 김도형학우를 강제연행한 것이다.

당국이 새해 벽두에 김도형학우를 체포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올해에 어떻게하나 학생운동을 원천적으로 말살하려는데 있다.

당국은 올해에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게임, 지방선거와 대선 등 이른바 4대행사를 계기로 정국의 안정을 꾀하려는데 선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경찰청이 올해 월드컵개최와 각종 선거를 앞두고 모든 집회 및 시위에 강경대응을 선포해 나선 것이라든가 당국이 노사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지금 사법당국은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의 일념으로 불타는 청년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회유와 기만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도형학우에 대한 체포를 **로 새해 벽두부터 청년학생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탄압작전에 열올렸다. 하지만 그 어떤 파쇼적 탄압으로써도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자주통일에로 향한 우리 청년학생들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욱 시퍼렇게 날이 서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 우리 청년학생들의 기질이다.

우리 백만청년학생들은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당국의 파쇼적 탄압과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올해에도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선봉장으로 우뚝 설 것이다.

당국은 6.15공동선언을 받들고 민주화와 민족자주통일에로 향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하며 이에 역행하는 온갖 파쇼적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는 대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전남대학교 2만학우와 백만청년학생들의 요구대로 김도형학우를 비롯한 구속학우 전원을 무조건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주장이 날카로운 서한영씨의 글,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출범식

강위력한 민족민주전선 구축하자



≪10년의 전망 3년! 3년의 계획!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조국통일 완수하자≫라는 기치 아래 민주주의민족통일 11기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이 지난 3일 연세대 대강대에서 각계 단체 2천5백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먼저 전국연합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2001년 사업 평가와 2002년 사업 계획을 의결했으며 상임의장에 10기 오종렬 의장, 공동의장에 노수희 의장이 유임됐다. 한편, 전농 정광훈 전 의장이 새롭게 11기 공동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시 방한을 저지하자≫라는 특별 결의문도 채택됐다.

민중가수 ≪우리나라≫의 공연으로 시작된 출범식은 각 단체 대표들의 인사와 연대 발언,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11기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2002년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바탕에 두고 광범위한 민주민족운동 세력을 결집하는 전선을 구축해야 하며, 그길에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잡은 손을 놓지 말고 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열어가자≫고 전했다.

이어 신임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정광훈 의장은 ≪존경하는 오종렬 의장님을 모시고 강위력한 전선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선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는 ≪전국연합은 다른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조직이며, 사람들이다. 전국연합의 앞길에 찬란한 건투와 승리가 있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도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 이행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밝혀주는 지름길이다. 전국연합의 출범을 축하하며 다함께 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나서자≫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민주노총 이규제 통일위원장은 ≪아직까지 민주노총이 전국연합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욱 연대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종렬 신임 의장을 소개하는 진주 큰들문화센터의 문화공연으로 11기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이 끝났다.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 총화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1. 31 (목) 충남지역학교(단국대, 고려대, 공주대, 순천향대, 호서대)학생 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식순

1. 참가 단위 소개
2. 이용길 충남지부 지부장님 말씀
3.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연혁 및 활동보고
4. 민주노동당 강령 소개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이재기 사무처장님)
5.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토론의 장
   1) 민족민주전선 강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2) 창당 이후 민주노동당 활동과 충남지부의 활동 발표 및 향후 계획 (이용길 지부장님)
   3) 대선에 대비한 민주노동당 및 충남지부의 계획과 과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학생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용길 지부장님)
6. 선행된 토론 내용 중심으로 세부토론
   1) 단위별 민주노동당 관련 의식및 준비 정도,단위별 고민
   2)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
   3)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7. 정세 비디오 시청
8. 평가 및 뒷풀이

토론회를 통하여 충남지역 학생들은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할 것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임시체계로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 준비단"을 꾸렸습니다.

각 학교 주체들로 이루어진 준비단"은

1)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가며 학교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역량을 강화
2)학생위원회 건설 후 체계 및 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
3)실천 투쟁을 전개하여 이후 투쟁 방향 모색
4)충남지부와의 지속적인 만남

을 통해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 준비단은 더나아가 청년학생들의 진보적인 정당 참여에 선봉할 것을 결의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분열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해버려야 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9일~30일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분열주의세력들의 의도적인 통일방해책동으로 인해 조국통일운동은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일방해꾼들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이루려면 이러한 내외분열주의세력들의 통일방해책동을 분쇄해버려야하는 거겠죠.

윤정원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이건 민족자주정신이 그대로 맥박치는 애국애족의 구호고 우리 민족의 절절한 통일지향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구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에 의해서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요.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는 건 민족자주통일실현의 선차적 과제의 하나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민족자주통일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한반도정책, 특히 대북적대시정책, 대북압살책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정원 :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은 장본인이죠. 이 땅을 영구적으로 강점하고 이 땅을 발판으로 이북과 나아가서 아시아 전지역을 침략하려는 것, 이건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미국의 일관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침략적인 전략을 실현해보려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에 대한 침략책동, 적대시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어요. 특히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호전적이고 악랄하다 하겠는데요. 재미언론인 김민우씨는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의 본질이 ≪적대정책≫, ≪압살정책≫이라고 규정할수 있다고 말했는데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부시정권은 출범하자부터 대북강경일변도정책에 매달리면서 대북고립압살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있지도 않은 북의 핵위협을 떠들면서 사찰이니 검증이니하며 오만하게도 힘에 의한 문제해결을 떠들어오고 있고 한반도주변에 무력을 증강하는가 하면 이 땅에 각종 신형무장장비들을 투입하고 각종 대규모한미합동전쟁연습을 연이어 벌이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간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통일실현의 유리한 국면이 열리던 정세가 돌변해서 6.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과 불신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부시정권은 특히 9.11사건후 더욱더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정권은 6.15공동선언을 달갑지않게 여기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른바 반테러를 구실로 시작한 전쟁을 확대해서 그 불씨를 한반도에로 옮기려고 책동하고 있죠?

윤정원 : 아시겠지만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온 지구촌에 전쟁의 불을 지르려 하고 있어요. 부시정권은 9.11사건을 걸고 보복응징을 운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고 오늘은 그것을 중동지역과 이북에로까지 확대하려고 책동하고 있죠. 부시정권이 이북에 테러지원국딱지를 붙이면서 이북공격설까지 퍼뜨리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최소한의 방어력이라 할수 있는 북의 재래식무기체계까지 해체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건 북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서 이남뿐 아니라 이북까지 타고 앉으려는데 그 검은 속셈이 있는거죠. 부시정권의 이런 위협공갈과 강도적 압력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고 또 그런 위협공갈에 굴복할 이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시정권은 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이는 한편 위정당국에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강요하고 있고 새해들어서는 미국의 호전광들을 연이어 이 땅에 들여보내 군부호전광들과 전쟁모의를 벌이면서 한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장애물의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우익보수세력들과 호전광 등 반통일세력이죠.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은 미국상전의 반통일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해 버리려고 책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이 땅의 호전광들, 우익보수세력들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 대북압살책동에 적극 편승해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9.11사건은 우리 민족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우익보수세력들과 호전광들, 반통일세력들은 9.11사건을 걸고 북의 동향 운운하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비상경계조치까지 취했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그들은 주적론을



계속 제창하면서 동족을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우익보수세력들과 파쇼당국은 또한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애국세력들을 계속 악랄하게 탄압을 하고 있죠. 우익반동들, 군부호전광들은 안보니 테러방지니 하는 구실로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강화하고 각종 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익보수세력 등 군부호전광들의 반북적대시정책, 북침전쟁책동에 의해서 이 땅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고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분쇄해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적 단합도, 자주적 통일도 실현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층 민중들과 여러 투쟁단체들에서는 내외 분열주의세력들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각계 민중, 통일애국세력들은 민족자주통일실현의 근본열쇠는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있다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자주통일의 원수 미국은 이 땅에서 손을 떼라, 이것이 각계 민중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민족화해자주통일협회는 지난해 12월 30일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의 망발을 규탄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전쟁책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각계 민중은 외세와 야합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을 모해압살하려는 우익보수세력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서총련 등 여러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진행한 6.15공동선언실천 2001년 총결산대회에서는 미국에 붙어 공동선언이행을 앞뒤에서 방해하는 이회창과 같은 통일역적을 반대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결의문에서는 ≪우리는 민족을 배신하고 외세에 추종하는 민족의 역적 이회창을 정계에서 영원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리고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학생연대준비위원회는 성명에서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에 역행하여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투쟁결의를 다졌고 이밖에도 운동단체들과 각계의 시민단체들에서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자 : 각계 민중은 ≪6.15공동선언이행은 국가보안법철폐로부터≫, ≪반민족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완전철폐하고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도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요. 6.15공동선언발표후 시대의 흐름과 한반도의 현실은 민족분열을 꾀하는 내외의 분열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해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우리 민족의 앞길이 있다는 걸 극명히 보여주고 있죠.

윤정원 : 그래요. 6.15공동선언후 한반도의 정세는 사대와 분열의 암운이 자주와 통일의 서광으로 바뀌고 친미반북의식이 반미연북의식으로, 냉전과 대결의 기류가 화해와 협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이행과정에서 조국통일이 전민족이 함께 가는 길이고 7천만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면 6.15공동선언은 이 길에서 우리 민족이 곧바로 나가게 하는 자주통일선언이고 민족대단결선언임을 심장깊이 간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으로부터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그 이행을 위한 범국민적 공동투쟁에 나서는 건 오늘 우리 각계층 민중들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 7천만 온 겨레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해 투쟁한다면 내외반통일세력들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서 민족자주통일의 서광을 하루빨리 안아오게 될겁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평양에서 진행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 발표된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셋째조항에는 이렇게 지적돼 있습니다.
≪전쟁의 화근인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그들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철저히 배격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외세와 공조하며 함께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다.≫
한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내외반통일분열주의세력을 그냥 두고는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없고 통일이 이룩될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반통일분열주의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하겠죠.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려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30일~2월 1일

그럼 계속해서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려면≫ 윤정원씨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새해를 맞은 지금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급 학생조직들앞에는 학생운동에 대한 지도력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자면 학생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에 관해 얘기나눴으면 해서 자리 같이했습니다.
윤정원 : 일반적으로 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건 대중운동발전의 필수적 요구죠. 대중운동으로써의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조직이 광범위한 학생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돼야하는 것은 학생운동의 현실태를 봐도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당국의 학생운동와해말살책동과 일부 각성되지 못한 학생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대학들이 한총련을 탈퇴해 한총련과 대치되는 조직을 내오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한총련의 노선과 방침을 시기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로인해서 학생운동이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일련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투쟁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자 : 땅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나무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학생운동조직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수 있죠.
정말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건 학생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요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겁니다.
윤정원 :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학생운동핵심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요구와 지향이 뭔가를 잘 파악하는 것과 함께 변화되는 정세를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그에 기초해서 옳은 투쟁노선과 방침을 제시해야할 거라고 봐져요. 이와 함께 주관적 욕망만 앞세우면서 모험적이며 극좌적인 투쟁노선과 방침은 제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조직내 민주주의를 방법있게 잘 발양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학생들속에서 학생조직이 관료화되고 운영방식이 폐쇄적이고 경직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옳은 지적이십니다. 학생운동조직이 대중조직답게 큰그릇을 가지고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결함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좀더 아량을 가지고 학생들을 포섭해야겠는데 노선와 지향문제에서 조금만 의견차이가 있어도 상대방을 배척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죠.
사회자 : 일부 핵심운동가들의 이같은 편협한 사업작풍은 대오의 단합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고 있죠. 학생운동조직은 이런 경직된 운영방식을 하루빨리 없애고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를 잘 발양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러자면 관료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야 하는데요. 학생운동 핵심성원들은 향기를 풍겨 나비와 벌들이 날아드는 꽃처럼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학생들을 따뜻이 대하며 특히 주의주장이 좀 다르다고해서 배척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능숙하게 포섭해서 광범위한 대중을 모두 학생조직에 굳게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학생운동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그에 걸맞게 조직체계를 잘 꾸려야하죠.
윤정원 : 그럼요. 조직을 대중운동조직답게 튼튼히 꾸려야 대중속에 뿌리박을수 있고 따라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 학생운동조직을 튼튼히 꾸리자면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망라할수 있게 조직을 내오고 학생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조직을 강화하는게 중요하죠. 그러자면 능력있고 애국심이 높으며 작풍이 좋은 그리고 대중성이 강하고 학생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학생들로 학생회를 꾸리는 것과 함께 일사분란한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할겁니다.
사회자 : 학생조직들을 잘 꾸리는 것과 함께 그 활동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럼요. 조직을 잘 꾸리는 것도 활성화를 더 잘하자는데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학생조직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작업에 큰 힘을 넣어서 그들이 언제나 투쟁에 나설수 있도록 사상정신적으로 준비시켜야 할겁니다.
의식화작업을 학생대중의 준비정도에 걸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부단히 진보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정세의 요구, 이걸 제때 포착하고 그에 따라 청년학생들을 투쟁에 적극 불러일으켜 세워야하죠. 그래야 투쟁을 통해 학생들을 더 단련시킬수가 있고 또 투쟁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조직의 필요성과 단결의 위력을 더 잘 인식할수 있는거죠.
사회자 :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된걸 종합해보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우선 노선과 방침을 정세의 요구와 학생대중의 지향에 걸맞게 잘 세우고 그중에서 민주주의를 옳게 발양시키며 학생조직을 강화하고 활동을 부단히 활성화해 나가야한다.≫ 이렇게 요약할수 있겠는데요. 학생운동핵심성원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해 학생운동발전에서 큰 진전을 가져오길 바라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감하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현 정세와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최성원동지에게 보내는 통일여명의 공개질의 (편집국 보도 51호)

먼저 ≪두 개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이하 ≪두개전선≫)에 이어 ≪현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이하 ≪이론문제≫)라는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며 민족민주운동상의 긴절한 이론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크게 기여한 최성원동지(대오)에게 변혁적 경의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편집국이 동지에게 공개질의를 한지도 꽤 시간이 흘렀으며 그간 정세도 이론논쟁의 초점도 바뀌었습니다. 한편 동지는 ≪이론문제≫에서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의 변화로 답변이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도 되었고 해서 새롭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동지가 지난번과 이번의 공개질의를 다함께 참조하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사색과 연구의 초점은 언제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을 잘 받들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미약한 역량이나마 민족민주운동을 위하여 값있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개질의에는 이러한 인식이 바탕에 놓여있습니다.

1. 우리는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영도의 승리이며 원대한 통일혁명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 두 선언으로 정세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두 선언에는 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에 대하여는 몇년전부터 김명철선생과 한호석소장이 좋은 글들을 연속발표하여 민족민주대오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생 모두 국내입국이 정보원에 의하여 금지된 상태입니다. 한호석소장은 자신의 논문에 장군님께서 6.15공동선언 이후 10-15년이면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하셨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에 대한 동지의 해설을 듣고 싶습니다.

2.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발표된 여러 글들을 연구분석한 후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적 전취목표는 민족자주위업완성과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자주적 평화통일실현이며 당면 전취목표는 민족통일기구수립과 일반민주주의실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하여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전술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전략적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교두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의 관계에 대하여도 언급해주기 바랍니다.

3. 민족민주운동이 통일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전선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전위당의 견해와 함께 최성원동지의 이론을 연구분석한 후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동지도 짐작하였겠지만 지난번 공개질의시 우리가 궁금해하던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동지의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당면해서 민족민주대오내에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과 민중생존권쟁취강령의 반파쇼민주주의전선의 상호관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양자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언급해주기 바랍니다.

4. 통일전선사업에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원론적으로 그 주체는 노동계급과 노동계급의 변혁적 당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민주전선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의 경우 민족민주전선이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바로 진보정당입니다. 지지난해말 한백연동지는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에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으로 진보정당이 가장 적합하다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 올해는 중요한 양대선거가 있으며 특히 대선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여부에 따라 향후 정세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양대선거에서 민족민주세력이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이루어내는 동시에 개혁세력과 연대하며 친미수구세력을 고립타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개혁세력과의 일체 연대를 거부하는 경향과 반대로 ≪비판적 지지론≫을 추종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거시기에 후보전술은 언제나 민족민주대오의 최대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 동지는 보안법철폐의 의의를 강조하며 그 책임적 주체는 바로 민족민주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역시 대중투쟁이지만 의회투쟁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안법철폐는 올해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차기 총선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안법철폐의 구체적 실현경로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7. 미군철거투쟁의 주도역량이 북측 반제자주역량이라고 하여 이를 남측 민족민주역량이 홀시할 수는 없습니다. 동지의 견해대로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구국통일전선 혹은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 상승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족민주전선의 목적의식적인 조직정치사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미군철거투쟁은 전략적 구호와 전술적 단계의 요구를 배합하며 묘술있게 전개함으로써 반미투쟁을 대중운동의 단계에 올려세우는 것이 당면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보완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8. 우리는 언제든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안전하고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일 것입니다. 올해 당보, 군보, 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이나 전위당의 다양한 글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을 총노선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동대오 일각에서는 현정세를 전쟁정세로 보며 반미반전을 총노선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반미투쟁이 불변의 전략으로서 결코 늦추어서는 안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6.15공동선언실현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양대선거가 있는 해로서 민주화투쟁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세와 총노선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9. 동지가 지난 논문에서 밝힌 이북에는 혁명역량이 통일전선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견해가 운동대오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글 ≪사회주의사회에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견해≫에 나와있습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현재 형성된 민족통일전선의 장래운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보완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0. 올해는 한민전의 신년서한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민족민주대오의 한해 총노선수립에서 신년서한이 가지는 절대적 비중을 볼 때 파격적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02년 전위당의 신년메시지는 있다≫는 글에서 이 조치는 ≪하나의 혁명영도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란 동지가 ≪두개전선≫에서부터 운을 떼고 ≪이론문제≫에서 모를 박은 중심내용입니다. 때가 되었다면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관계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정리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공개질의에 대한 동지의 답변은 굳이 문답식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절한 계기에 적절한 형식으로 발표되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의 이론연구활동을 총화하며 2월중에 ≪민족민주운동론≫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동지의 견해가 발표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지의 논문은 우리의 이론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지(대오)의 건투를 바랍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 2월 1일
서울

≪백두기간≫을 선포하며

통일여명편집국 공보(편집국 보도 47호)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 전투를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올해 태양절을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는 대경사로, 온 민족과 인류공동의 최대축제로 빛내이며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겠습니다.≫(한민전 중앙위원회 신년축하문)

올해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을 겹으로 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주체혁명무력 창건 70돌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90일동안을 ≪백두기간≫으로 설정하고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집중선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백두기간≫ 중에 주체형의 피디에프일간지 ≪통일아리랑≫을 매일 발간할 것입니다. ≪통일아리랑≫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장군님이 마련하여 주신 6.15공동선언실천을 기본내용으로 하며 전혀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피디에프신문입니다. 동지들은 ≪통일아리랑≫을 통해 거의 실시간대로 조선중앙방송과 **김일성**대학방송강좌, 구국의소리방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상의 유익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백두기간≫ 중에 피디에프총서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할 것입니다. 피디에프총서 ≪세기와 더불어≫는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원본에 수록된 사진과 각종의 귀한 자료를 결합하고 피디에프를 이용해 재편집한 것입니다. 동지들은 이를 통해 ≪세기와 더불어≫를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백두기간≫ 중에 통일여명판 ≪21세기 태양≫총서와 ≪통일여명 철학강좌≫를 발간할 것이며 월간 ≪통일여명≫을 ≪2.16기념특간호≫와 ≪태양절기념특간호≫로 발간할 것입니다. 통일여명편집국에서는 다달이 ≪6.15백서≫, ≪반미백서≫, ≪진보정당백서≫, ≪학생운동백서≫ 등도 발간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백두기간≫ 중에 발표되는 ≪통일아리랑≫, ≪통일여명≫, ≪6.15주간≫, ≪인터넷구국의소리≫ 등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에 대한 해설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 기간의 이론연구활동을 총화하며 발표하는 ≪민족민주운동론≫은 그 일환이 될 것입니다.

≪백두기간≫ 중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온갖 관성과 안일을 타파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두기간≫중의 모든 사상선전활동이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동지들의 위임에 의거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2월 1일
서울

위대한 장군님 탄신 60돌 기념특간호를 발간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편집국 보도 49호)

≪우리 혁명전사들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당사업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당의 기초를 축성하던 그때의 순결한 혁명정신이 맥박쳐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미전에 내놓으신 종자론과 속도전의 방침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



≪새해에 우리들은 백전백승의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와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 각계민중의 숭배열기가 온 남녘땅에 대하로 굽이치게 하겠습니다.≫(한민전 중앙위원회 신년축하문)

올해 2월 16일은 민족최대명절이며 인류최대축제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이 되는 대경사일입니다. 뜻깊은 2월의 대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다양한 차원의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통일여명 14호를 ≪위대한 장군님 탄신 60돌 기념특간호≫로 발간합니다.

≪탄신60돌특간호≫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백두장군≫란에 집중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이론, 업적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선군혁명영도와 통일혁명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특집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탄신60돌특간호≫에서는 또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기념행사와 기념활동들을 종합하여 ≪백두청년≫란에 종합게재하고 있습니다. ≪백두청년≫란은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대외기관지인 ≪통일여명≫에 수록된 대내기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을 기념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투쟁과 활동은 2월 한달내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차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 활동들은 ≪통일여명≫ 15호에 승리적으로 총화될 것입니다.

올해 당보, 군보, 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이 밝히고 있듯이 ≪온 세계가 우러르는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올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2월 1일
서울

≪월간백서≫를 발간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편집국 보도 50호)

≪6.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투쟁하여 온 지난해의 교훈은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



≪우리들은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경주하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거센 열풍으로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장식하겠습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 신년축하문)

통일여명 편집국은 지난 기간 민족민주대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백서를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발간한 백서들은 ≪통일전선≫, ≪6.15공동선언≫, ≪조선노동당≫ 등 주제별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 주제별 백서발간사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앞으로 월간지 형태의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월간백서≫는 월간 ≪통일여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단은 ≪6.15백서≫, ≪반미백서≫, ≪진보정당백서≫, ≪학생운동백서≫ 등으로 나누어 발간합니다.

월간백서는 제목에 나와있듯이 6.15공동선언실천과 반미투쟁, 진보정당활동, 학생운동에 대한 지난 한달동안의 중요자료를 모두 담아놓은 말그대로 백서입니다.

월간백서는 가장 효율적인 검색기준의 하나인 시간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색깔과 굵기를 달리 하였습니다.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 보기 쉽게 편집해 놓은 것은 물론입니다.

월간백서는 동지들이 지난 한달간의 투쟁흐름을 조망하는 한편 관련 자료들을 쉽게 찾아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동지들의 지난 활동총화와 향후 투쟁설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백서발간사업은 정세와 동지들의 요구에 따라 주제별로도 발간되며 월간백서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동지들의 활동을 방조하는 통일여명의 선전투쟁은 계속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2월 1일
서울

인터넷구국전선에 내나라컴퓨터사에서 만든 백두산3대장군의 동영상 게재!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편집국 보도 52호)

인터넷구국전선에 내나라컴퓨터사에서 만든 동영상파일이 게재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구국전선에는 4개의 동영상파일이 게재되어 있으며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파일들은 우리 민족민주대오만이 아니라 광범한 국민대중이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동영상파일들은 누구나 다 인터넷구국전선(www.ndfsk.dyn.to)에 접속하여 그 압축파일을 쉽게 내려받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영상 제작 및 공개 사업이 전망성 있게 전개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 보급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위대성동영상자료를 운동대오의 주요게시판에 널리 선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대성동영상자료를 ≪통일아리랑≫과 ≪6.15주간≫, ≪통일여명≫ 등에 적극 소개선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성동영상자료를 우리의 주체사상시디에 수록하여 광범하게 배포할 것입니다.

내나라컴퓨터사의 동영상제작사업은 위대성선전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비약입니다. 시대추이와 대중정서에 맞는 입체적인 영상물들은 위대성선전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내나라컴퓨터사의 활동을 널리 소개하는 사업과 함께 그 모범을 따라배워 입체적인 영상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2월 1일
서울



붉은 백두

김남진

노을이 타는 천상에 섰다
기나긴 이 나라 역사 반만년
누가 그대를 흰산이라 했는가
내 넋도 물드는 해돋이 순간
백두는 타는듯 붉다
머리들어 바라보는 하늘
천폭만폭의 붉은기를 띄웠는가
살같이 산제비 내리꽂히는
연봉의 아아한 기암괴석들
번쩍이며 붉은 광채 뿜는다
흙도 돌도 눈도
점점이 하나같이 붉은 백두
천지 물도 쇳물같이 붉게 끓어
한라산을 옮겨 잠근대도
그만 붉은 산 되리라
빼앗기고 짓밟힌
백의민족의 넋을 일으켜
여기 휘날린 그 기폭으로 붉은 것인가
광복전에 흘린
선열들의 더운 피에 젖어 붉은 것인가
붉음은 애국이며 애족이어라
나라사랑 겨레사랑
온 세상으로 간직하신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그분을 닮아 백두는 붉다!
아, 백두만이 붉으랴
그대의 줄기줄기 한라에 내렸거늘
물들어 한모습으로
한라, 한라
우리의 한라도 붉어야 한다

주체 91 1월 27일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 회원인 김철호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를 높이 찬양했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25일 오전 8시부터 조합원 9300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원 300여명이 2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신당동과 방화동, 경기도 화성과 성남시, 분당 등 대우자동차 영업소 4곳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회는 지난 6.25전쟁당시 감행된 대량학살이 미군의 공식명령체계에 의한 계획적인 만행이였다는 것이 다시금 폭로된 것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근리대책위원회는 23일 현재 육군대학 교관인 류무봉소령이 지난해 5월 미육군지휘참모대학 연수중에 노근리사건의 책임이 미군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6.25전쟁초기에 노근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살상명령을 반복해 내렸다는 사실이 영국 BBC 방송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미국을 행각중인 한나라당 이회창은 25일 백악관에서 체니부통령과 만나 남북관계에서의 한미공조방안,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회창은 이 자리에서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뭐니하면서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과 북의 위협이니 뭐니하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미당국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회창은 이어 미국무부에서 파월국무장관과 아미타지부장관을 만났으며 오후에는 미의회 상하원 원내총무들과 상원외교위원장을 만나 한미공조를 유지해줄 것과 자신의 대선출마를 지지해 줄 것 등을 구걸했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행위는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의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대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은 미상전들에게 아부굴종하며 대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갖은 추태를 부려 조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40권이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판된 소식을 중국의 ≪인민일보≫ 12일자가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약사를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 10일자와 14일자가 응근 1면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러시아고통련 이동철위원장이 지난 23일 담화를 발표해 이북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올해 우리 민족이 들거나가야할 3대호소, 3대제의를 해내외 주둔 동포들에게 엄숙히 선포했다며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주체 91 1월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일원에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이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광고유인물이 나돌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된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해 22일 논평을 냈습니다.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이 지난 23일 중앙위원회에서 이북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며 6.15공동선언이행 등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와 한국생명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800여명은 26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각계에서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이번 미국행각을 추악한 매국노의 행각으로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의 이번 미국행각은 그야말로 역적중의 상역적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행각한 이회창은 상전들앞에서 대북포용정책이니, 상호주의니 그 무슨 근본가치를 보장하는데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수 없다느니 하며 동족인 이북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했다. 이회창은 이 땅에서 동족간 불화의 씨를 뿌리고 대결을 격화시키다못해 외국에까지 나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모해압살하려는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일개정당의 총재를 자처하는 이회창이 온갖 험담을 내뱉으며 동족을 헐뜯고 민족을 망신시켰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자가 총재감투를 쓰고 있는 한나라당이야말로 가긍한 집단이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하자는 때에 동족압살을 구걸하며 돌아친 이회창을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민족의 명부에서 지워버리고 이 땅에서 추방해야한다.≫
재야인사 박모씨는 미국에서 보여준 이회창의 추한 꼴은 참으로 역겨운 것이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찾아간 이회창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상전들의 비위에 맞는 언행만을 골라해가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급급했다. 이회창의 이런 꼴은 꼭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꼬리를 내젖는 삽살개모양 한가지였다. 미국상전들에게 잘보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당선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땅에는 이회창과 같이 비굴하고 너절한 인간추물을 용납할 사람은 한명도 없다. 우리 국민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해치고 망신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회창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의사결의대회를 열고 현 의약분업은 의약품오남용을 방지하지도, 보험재정을 절감하지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지도 못한 실패한 제도라면서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실정에 걸맞고 국민과 의사가 합의할수 있는 새로운 의약분업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의, 정 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0여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소속 회원 300여명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미군기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측이 기지이전을 위해서 100만평이 넘는 부지와 막대한 이전비용을 요구하는 등 용산미군기지이전이 국민여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25전쟁초기 노근리 등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미군지휘부가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영국의 BBC방송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재미동포서북연합회가 이북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을 지지해 2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승상섭위원장이 이북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지지해 2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그분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기니 전국교육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약사를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 21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우크라이나공산당과 우크라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는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우크라이나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당면하여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수행할 행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방송이 특집했습니다.

주체 91 1월 29일

민주노총은 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올해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다음달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34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 19일 제10기 한총련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투쟁의 앞장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는 이회창의 망발을 규탄해 지난 2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해 오는 2월에 있을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반미운동단체들은 한나라당 이회창이 미국행각중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떠들며 통일후에도 계속 주둔해야한다고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의 한 인사는 이회창의 친미사대주의적 미국행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의 이번 미국행각은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켜 상전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추악한 매국노의 행각이였다. 더욱이 참을수 없는 것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한다면서 미국상전들에게 아양을 떤 것이다. 주한미군이 온갖 범죄와 전쟁의 온상이고 통일의 방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억제세력이니 뭐니하며 계속 주둔할 것을 구걸한 것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과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지금 각계 민중이 미국 대사관앞에서 반미투쟁을 힘있고 벌이고 있는때에 이회창이 미국에 날아가 한미공조를 떠들며 돌아친 것은 국민을 배반하고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대권야욕을 세우려는 더럽고 비굴하기 짝이없는 망동이다. 아무리 미국의 뒷받침을 받는다해도 국민은 매국노 이회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전국민이 미군기지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때에 이회창이 미국상전을 찾아가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한 것은 도저히 참을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군기지반환운동을 벌인 것은 단순히 땅을 되찾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회창이 미군을 전쟁억제세력이니 뭐니하며 영구주둔을 애걸했으니 민의에 역행하는 망동이 아닌가. 지금 호전광 부시가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최신전쟁장비들을 계속 들이밀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데도 미군을 전쟁억제세력이니 뭐니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아무리 대통령병에 걸렸다고 해도 현실을 부정하면서까지 미국에 아첨을 하는데는 국민의 심판을 면할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회창이 미국상전들을 찾아가 확고한 한미공조를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역설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기도라면서 반통일분자 매국역적은 마땅히 제거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 땅에서 북침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는데 한미공조를 떠든 것은 미국의 전쟁정책에 동조하겠다는 망언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 호전광이 집권하게 되면 6.15공동선언이 파기되고 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돼 전쟁의 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면서 전국민이 매국역적 이회창타도투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해 이북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30대주부가 자신의 아들 2명을 살해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화첩 ≪민중들과 함께≫를 러시아의 빨레야-미쉰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주체 91 1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9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 1월 17일 서울 동국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식출범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 300여명이 1월 28일 파주시청앞에서 개발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월 29일 지난해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4개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정부가 환수해야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기 서총련 정기중앙위원회 참가자들이 1월 23일 결의서를 통해 ≪올해는 자주통일의 대진군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시기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해왔던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근리미군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는 2월 1일 방영될 영국 BBC방송의 노근리사건 다큐멘타리 ≪모두 죽여라≫와 관련해 ≪미국은 노근리사건을 우발적 사건으로 덮으려했지만 제3국의 공영방송이 참전미군들의 학살명령증언을 통해 미국측 조사결과를 전면으로 반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기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지지해 1월 23일 성명을 냈습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양영동의장이 1월 28일 담화를 통해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 환영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희세의 위인을 우러르는 민중의 마음을 담아 영도자님의 위인상을 집대성한 총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전5권)를 출판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문학예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장철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담화를 발표해 이북 정부, 정단, 단체합동회의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월 25일 이북을 방문한 러시아연방 국가규격

화 및 계량위원회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국왕의 지시에 따라 왕궁담당부수상을 위원장으로 왕궁정부 국무상겸 보건상과 캄보디아인민당 콩 쌈 올을 위원장으로 하는 2월 16일경축 캄보디아준비위원회가 1월 22일 프놈 펜에서 결성됐습니다.

주체 91 1월 31일

9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원회들인 조국통일위원장,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강총련의장, 서총련의장, 부경총련의장, 남총련의장은 1월 21일 간담회를 갖고 한총련의 학우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는 영국 BBC방송에 의해 미군의 민간인학살만행이 더욱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1월 26일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월드컵이 열리기 전인 5월에 임단협관련투쟁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회창이 미국을 행각후에 동족인 이북을 압살하고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역적질만을 일삼아온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이 상전들앞에서 주한미군을 ≪전쟁억제력≫으로 찬양하면서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한데 대해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의 한국강점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에 찬 분단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군이 이 땅을 타고앉아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 민중의 통일열망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서만도 미군은 북을 겨냥한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하는 등으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켜 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이건 미국이 흉악한 강점자, 침략자임을 실증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회창이 이를 외면하고 주한미군을 ≪전쟁억제력≫으로 추어올리면서 그의 영구주둔을 애걸한 것은 흉폭한 이리를 순한 양으로 둔갑시킨 것보다 더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이는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반역을 생리로 살아온 이회창만이 할수 있는 망언이 아닐수 없다.

이 땅을 미국의 영원한 속국으로 떠밀기려는 이회창을 절대로 그냥두어서는 안된다.≫

인천시에서 살고 있는 재야인사 이모씨는 이회창이 들고 나온 ≪전략적 상호주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이 남북문제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한다고 떠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호주의란건 하나의 민족인 남과 북의 관계를 서로 다른 두 국가간의 관계로 전락시켜 민족을 영구분열시키려는 반민족반통일논리이다.

그런데 이회창이 이번에 미국상전들앞에서 들먹인 ≪전략적 상호주의≫라는 건 이보다 더 고약한 것이다. 그 내용의 하나가 북의 재래식무기를 감축해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남쪽의 핵무기를 가진 방대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도대체 상상조차할수 없는 잠꼬대같은 소리다.

어떻게 북이 자기를 먹겠다고 기회만 노리는 침략자가 눈앞에 있는데 재래식무기를 감축할수 있겠는가. 정말 이회창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이다. 이회창은 지금 미국의 의도대로 북을 무장해제시켜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앞잡이가 돼서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헤덤비는 이회창이야말로 가련한 존재가 아닐수 없다. 이회창은 더 늦기 전에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1월 3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연대파업결의대회를 연 서울지역 6개 공기업노조대표들이 각 사업장별로 사측과 오후 4시부터 단체교섭을 재개했지만 결렬됐습니다.

6.25전쟁당시 미군지휘관이 민간인에게 총을 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가 최근 이를 다시 번복한 참전미군 얼리에 대해 노근리대책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범청학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제12차 회의가 1월 30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재러조선공민중앙협회 채종만회장이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해 1월 2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절에 즈음해 1월 22일과 23일 인도주체사상연구회 토론회와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불가리아준비위원회, 불가리아 조선친선협회의 원탁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스웨덴 외무상이 1월 28일 중동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예멘대통령이 1월 26일 한 외교석상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봉쇄책동을 규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족당국 아라파트수반의 공보보좌관은 1월 28일 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유혈사태가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당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각지에서 1월 27일 신나치즘을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들이 진행됐습니다.

주체 91 2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부산에서 활약하는 ≪조국통일선봉대≫가 그분의 통일관계저작들을 수록한 팜플렛을 출간했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파업을 선언한 서울지역 6개 공기업노조는 1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집회를 열고 2월초 연대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12.5%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각계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사대매국노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회창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행각했습니다.

이회창은 미국에 날아가서 체니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 미의회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한미공조니 뭐니하며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을 적극 찬양하면서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킬 것을 구걸했습니다.

이회창은 또 전략적 상호주의니 투명성과 검증이니 뭐니하며 이북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심히 자극하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회창은 이북이 변화된 것이 없다, 북의 전쟁무력을 해체시키고 그에 대처해야한다 뭐다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북의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감축시킬 것이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헙담을 내벹으면서 미상전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청탁하는 비굴한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회창은 심지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등을 비난하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는 반민족적 행위도 아무 거리낌없이 감행했습니다.

이회창이 미국행각시에 자행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친미사대주의적 망동은 이거야말로 더러운 권력야욕을 위해서는 외세에 아부하여 개질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특등매국노라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또다시 드

러내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남북사이에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분열과 대결만을 추구하는 이회창과 같은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결국 동족사이의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른바 반테러전이라는 구실아래 세계도처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하려고 책동하면서 동족인 이북을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때에 이회창이 제 상전들을 찾아가 이른바 한미공조를 떠들고 동족을 모해하려는 짓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은 애비가 저지른 친일매국행위와 자신이 저지른 법관시절의 범죄행위, 두 아들의 병역기피문제, 6.15공동선언반대 등으로 인해 각계에서 반이회창기운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다가 한나라당내부에서 대선후보경선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심화되자 미국으로 날아가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상전들의 지지를 받아보려고 비굴하게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천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국민들이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친미사대주의적인 반민족반통일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이회창이 자신의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겨레앞에 사죄하고 정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면서 민족반역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는 이회창일당을 더이상 용납하지 말고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할겁니다.

세계무역기구반대국민행동이 한미사이의 투자협정체결기도를 반대해 1월 28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19세기말부터 2차대전 패망때까지 한반도 곳곳에서 최소한 10만점의 문화재를 약탈해갔으나 반환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미군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습니다.

주체 91 2월 2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일 제1200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1월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절을 맞으며 진행된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1월 31일 호전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당면투쟁구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최로 ≪2002년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청년학생 통일일꾼전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월 29일 전쟁광신자 부시의 한국행각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회창이 미국에서 한 반통일적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해 1월 25일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대통령 부시는 이른바 ≪연두교서≫라는데서 이북과 이란, 이라크 세나라들에 대해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느니 뭐니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부시의 이같은 폭언에 대해 각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부시의 오만무례한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부시의 발언은 흑백을 전도하고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시가 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이니 뭐니하며 악담을 늘어놓았는데 이 세상에 미국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핵무기들과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생산, 비축하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가. 이북이 세계 유일초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정신병자처럼 악의에 찬 망언을 한 것은 저들의 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이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는 이른바 ≪대테러전≫이라는 구실을 붙여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한반도에 확대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부시가 서울에 날아들려고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부시야말로 전쟁히스테리이고 제2의 히틀러다. 우리 국민은 위험천만한 부시의 한국행각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야 한다.≫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부시의 망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시가 ************북의 대량살상무기니 뭐니하는 것은 세계 여론을 오도해서 북을 고립시키는 한편 저들의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정당화하려는 책동이다. 실제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인류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것은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다.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에서 탈퇴하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인상해서 대량파괴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미사일요격시험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또 대테러전이라는 구실밑에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달려고 악을 쓰는 것도 부시행정부의 전쟁광신자들이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최대의 악의 제국, 테러제국이고 깡패국가이다. 악과 테러, 깡패국가의 우두머리 부시란 놈이 반미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들을 음해하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긴장과 전쟁을 불러오려는 부시의 서울행각을 결사반대한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대변인은 이회창이 미국에 가서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언을 한 것을 규탄해 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끼르기즈공화국 대통령행정부산하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주체 91 2월 3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일 조선인민군 제179군부대와 제779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소속 회원들과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등 700여명이 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회창의 이번 미국행각을 친미사대주의적 매국배족행각, 반통일행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을 두고 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유엔주재 레바논 상임대표가 1월 28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자주권과 영토, 영공을 침해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했습니다.